



## 홍성군 서부면 대지조성업체 배짱공사 눈총

과태료 부과 · 개선명령 받고도 공사 강행... 방진벽 · 분진막 등 안전관리 시설 미설치

홍성군 서부면 00리 대지조성 공사현장 관계자가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받고도 개선은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

개발행위 관계자는 공사착공 전 홍성군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관련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필요할 조치를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저감 시설 신고를 하면서 야적물의 최고저장 높이에 1/3 이상 방진벽과 분진막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이행



을 하지 않고 있다.

방진벽과 방진막을 설치해야 하

는 구간은 약 750m가량이지만 이 중 일부 구간에 설치된 방진벽도 규정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비산먼지 저감시설과 안전관리 시설 미설치로 지난 4월 초 순경 홍성군이 경찰에 고발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고도 개선을 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에도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다가 홍성군에 적발돼 현재 행정처리가 진행 중 있지만 개선은 않고 있다.

방진벽과 방진막 설치 후 공사 마무리 시일까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 수천만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지난 11일 취재진이 토사를 실은 차량을 미행해본 결과 태안군 기업도시 한국타이어 현장 매립지로 반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제보자는 홍성군의 흙이 타지로 반출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홍성군은 현행법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현재도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주민 A씨는 절개지가 집중호우 발생 시 토사유출로 인해 붕괴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과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 환경담당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흙을 파내는 작업은 방진막 설치를 위한 작업이라고 답변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과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허기담당 부서 관계자는 "흙 반출 · 반입이 필수 상황 아니고 권고 조치에 해당된다며 현장을 확인 후 불법이 있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김정환기자

## 충남지역 해묵은 과제 해결하나

충남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국비확보 협조 당부



추진단' 신설 및 안정적인 국비투자 지원을 건의했다.

또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계룡대, 육군훈련소, 국방대 등 풍부한 국방인프라가 집결돼 있어 국방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산단 지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안희정 지사는 "당의 지원 덕분에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추경과 국정경의 주요 예산 사업에 포함됐다. 모두 당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 덕분"이라며 "도의 주요한 미래 전략 사업들이 국정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안 지사는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실천단계에 들어간다.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새로운 에너지 전략에 이르기까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시급한 일이 많을 것"이라며 "지방정부에서도 국가 재원 확보를 위한 국면적인 의견을 모아내기 위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도가 제안한 16개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예결위위원장은 "안 지사가 이제 여당 도지사가 되면서 충남도민들의 기대가 클 것"이라며 "지역예산 가운데 꼭 쟁겨야 할 사업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잘 받아들여 평가하겠다"고 화답했다.

윤후덕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부장을 맡아 지역 공약을 책임졌었다. 지방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간사로서 열심히 심부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전국 31개 산란계 농장 부적합 판정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 농가 검사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17일 오전 5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합판정을 받은 857개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은 시중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전체 계란 공급 물량의 86.5%에 해당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신규 25개 농가 포함 총 31개 농가(유통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2건 포함)

함이며, 해당 농가 물량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성분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피프로닐 7건, 비펜트린 19건, 플루페녹수론 등 기타 3건 등이다.

또한 검사완료 농가(876) 중 60개 농가에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했고 부적합 농가는 25농가이며, 친환경 인증 기준만 위배한 농가는 35농가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 농가의 계란은 회수 폐기 조치 중이다. 일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김태선기자

##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피해복구 지원 보험금 지급

99건 3억 8천만원 지급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풍수해보험이 지난 7월 강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청주 등 중부권에 연이은 강우로 인해 2,044건의 주택 및 비닐하우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은 99건으로 조사되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99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3억 8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8월 14일까지

50건에 대하여 2억 4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여 풍수해에 국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일반 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험료 48,600원 중 국민 부담분 21,800원(45%)만 납부하면 7,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8월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주택 22만 건, 온실 150만 m<sup>2</sup>로 지난해 동기 대비 주택 3.2%, 온실 4.3%가 각각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은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 센터에 연락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 Mission for Human

현대파워텍의 변속기 기술은 인간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동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속기 역시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합니다. 현대파워텍의 변속기가 탑재된것은 사실은 사람으로서의 자존감과 '승려' '통쾌'에 대한 심리를 갖고, 두꺼비처럼 승거울을 노리는 행복할 자동차의 마음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현대파워텍의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HYUNDAI POWERTECH

# 文대통령 취임 100일 가장 잘한 것 ‘서민·약자 우선’

## <리얼미터>조사결과... ‘탈권위적 소통과 공감 행보’ 우선적으로 꼽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가장 잘한 것”은 ‘서민과 약자 우선의 정책’, ‘탈권위적 소통과 공감 행보’가 우선적으로 꼽혔고 “가장 잘못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하나도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its 의뢰로 취임 100일 하루 전인 지난 16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국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서민과 약자 우선의 정책’이 2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탈권위적 소통과 공감 행보’가 21.3%로 2위, ‘뚜렷한 개혁 소신과 추진력’이 18.5%로 3위, 다음으로 ‘정의와 행령의 국정철학’(11.0%), ‘평화와 대화의 외교안

보’(4.9%)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는 2.9%, ‘하나도 없음’, ‘잘 모름’은 각각 12.2%, 6.2%.

가장 잘못된 부정평가로는 ‘하나도 없음’이 33.5%로 가장 많이 꼽힌 가운데, ‘과다한 신심성 정책’(19.2%)이 2위로 나타났고 이어 ‘내편/세편 편가르기’(11.8%), ‘외교/안보 능력 부족’(10.6%), ‘공약과 약속 뒤집기’(4.7%), ‘독선과 협치 무시 국정운영’(3.6%)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잘 모름’은 각각 5.5%, 11.1%.

먼저 긍정평가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전라(1위 서민/약자 우선 36.1%, 2위 탈권위/소통/공감행보 17.7%), 부산·경남·울산(1위 서민/약자 우선 21.6%, 2위 탈권위/소통/공감행보 16.6%), 경기·인천(1위 서민/약자 우선 21.4%, 2위

개혁소신/추진력 21.1%)에서는 ‘서민/약자 우선’이 가장 높았고, 서울(1위 탈권위/소통/공감행보 27.3%, 2위 개혁소신/추진력 18.4%), 대구·경북(1위 탈권위/소통/공감행보 26.2%, 2위 서민/약자 우선 24.7%)에서는 ‘탈권위/소통/공감행보’가 가장 높았으며, 대전·충청·세종(1위 개혁소신/추진력 23.2%, 2위 탈권위/소통/공감행보 22.4%)에서는 ‘개혁/소신/추진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평가에서는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1위 신심성 정책 32.2%, 2위 하나도 없음 28.6%), 대구·경북(1위 하나도 없음 39.5%, 2위 신심성 정책 23.1%), 광주·전라(1위 하나도 없음 34.8%, 2위 신심성 정책 21.7%), 서울(1위 하나도 없음 34.9%, 2위 신심성 정책 17.9%), 경기인천(1위 하나도 없음 36.6%, 2위 신심성 정책 15.0%) 등 부산·경남·울산은 제외된 모든 지역에서 ‘신심성 정책’과 ‘하나도 없음’에 이어 가장 많이 꼽혔다. 부산·경남·울산(1위 하나도 없음 29.1%, 2위 내편/세편 편가르기 18.3%)에서는 ‘내편/세편 편가르기’가 2위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김정환기자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 일본 소송시 관악협회 임원단 접견  
대전광역시의회 김경훈 의장은 17일 의정감정실에서 일본 소송시 관악협회 다나카 데쓰오미 협회장 등 임원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훈 의장은 “정중한 강국은 문화가 강한 나라”며 “앞으로도 양 도시 간에 지속적인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융합하여 독특한 관계를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 아산시의회 박성순 의원, 운영위원장 사퇴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기에 시민과의 약속 꼭 지켜야



아산시의회 박성순 의원이 17일, 운영위원장을 사퇴하며 소견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아산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에 개최된 임시회에서 아산시 인권조례 등 세 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처리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일일예고 절차를 누락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할

은 물론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지난 7월 의원회의에서 8월에 개최될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협의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제196회 조례안 발의 마감기한인 8월 14일까지 일일예고 절차가 결여된 세 건의 조례 중 한 건의 개정조례(안)만 접수됐다. 저는 아산시의회 의회운영 위원장으로서 의원의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의회운영위원장의 부덕함으로 인해 약속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했다.

박성순 의원은 “책임과 신뢰가 기반이 되는 의회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의회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합니다. 아산시의회 운영전반을 대변하는 위원장으로서 인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나 향후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라며,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 을지연습 대비 중구 지역예비군 지휘관 초청 간담회

중구의회, 중구 지역예비군 지휘관 18명 초청



대전 중구의회의장 하재봉은 을지연습을 앞두고 8월 17일 중구의회 의정실에서 중구 지역예비군 지휘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을지연습 준비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역

예비군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하재봉 중구의회 의장은 “북한의 핵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전쟁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시 완벽한 대응능력 제고로 국민의 불안감해소와 국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국가위기관리 및 국가총력적 연습을 통한 국가비상대태세 확립을 위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김정환기자

##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앞장

학교주변과 공원지역 로고젝터 설치 및 벽화그리기 사업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6의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우리 동네 만들기)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오 의원은 “사회의 안전지수(사) 시장 황규현의 협조를 받아 부성1동과 부성2동의 학교주변과 공원지역에 로고젝터(Logo Jector) 25개 설치 및 벽화그리기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안전도를 도모 할 것”이라고 밝

혔다.

오 의원은 부성1동, 부성2동 행복복지센터와 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지구대장 이달수)와의 협의를 통해 로고젝터에 표시되는 문구 도안과 설치장소를 확정하여, 범죄가 주로 발생하기 쉬운 야간 시간대 범죄자들의 범죄심리를 사전 차단하고 설치지역을 통행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이명수의원, 한국시설안전

공단과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8월 17일(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요구, 「현장중심, 찾아가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아산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던 아산 지역을 돌아보며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혹시 모를 사고예방 차원에서 아산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이명수 의원의 요청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해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17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산시 부흥향사회복지관 포함 4개 시설(▲해비타트 지역아동센터 ▲기쁨요양원 ▲온유한집 등을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그에 따른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초지반 침하, 내·외부 균열, 주요 부재변형 및 손상, 마감재 결함 상태 등 건축비상대태세 확립을 위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현장을 찾은 이명수 의원은 “점검 시 관리주체의 참여를 통해 안전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현장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관리주체의 점검 능력 또한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안전사고 위험시설로 판단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 담당자에게 바로 통보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아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대덕 효자2지구 “2018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공모사업” 선정

국토부 진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시진)은 국토

부가 진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대덕구 효자2지구가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 수요 맞춤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비용부담은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시행자(NH)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대상지로 선정되면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맞춤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용국 의원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청장 재임시부터 10여년을 끌어오다 작년(16년) 국회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LH와의 협약을 이끌어 냈다. 사업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구역이 제외되어 마음이 아팠는데 그 계획 구역이 이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성일종 의원, 류영진 식약처장 해임 촉구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책임 물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은 17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기자회견을 통해 “살충제 계란

이 국내에서도 발견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책임져야 할 식약처장이 국민을 속이면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철학과 소신도 없고, 전문성 또한 부족한 캄보 인사를 식약처장에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류 처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나, 국내산 달걀에 국제 기준치의 최고 21배에 달하는 살충제 성분이 나와 5일 만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환기자

## 배재대 강호정 교수, 대전도시공사 비상임감사 임명



배재대학교 강호정 <서재필대학장(경영학과 교수)>이 지난 14일 대전시청에

서 권선택 대전시장으로부터 대전도시공사 비상임감사 임명장을 받고 17일부터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갔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6월 경영, 경제, 행정 등 해당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비상임감사를 공개 모집한 바 있다.

신임 강호정 감사는 대전도시공사의 경영정책 심의·의결에 대한 의견 제출과 공사 경영에 대한 정책 제안, 회계 자문 등의 감사업무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0년 8월 16일까지다.

이정복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할인 혜택이 되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 바로 잡습니다 —

청정지역 전의면에 웬 벽돌공장 환경단체 ‘반발’에 대한 일부 내용,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본지는 지난 2017년 7월 10일자 홈페이지에 “청정지역 전의면에 웬 벽돌공장” 환경단체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주)삼일리드텍 공장 설립 의혹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대하여 (주)삼일리드텍 측에 질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였으며 공장의 구조를 견해에 맞추기 위해 편향적으로 지화화했다고 기사가 보도 된 것에 대해서는 공장 운영 시 외부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배출에 관한 기준을 따라 오염이 없게끔 관련시설을 갖추고 시에서도 인가하였으나 환경오염 심화를 초래할 기업으로 유추하여 보도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정식 건축허가가 나기 전 터파기 공사를 하는 불법행위가 논란거리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 후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확인하여 이를 정정합니다. 본지는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에 힘쓰겠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과학교육 붕괴 우려

# “인재 양성...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오세정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8월 10일 교육부는 올해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2021학년도 수능에서 과학II가 수능응시에서 배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고교 과학교육의 붕괴는 물론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미래 과학 인재 양성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오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혁신을 통해서 올바른 인재육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교육부의 수능개편으로 대입 수능 시험에서 탐구과목 수와 범위를 줄이면 고교 과학교육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교육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2005학년도 수능부터 이과 응시생은 물리 I·II, 화학 I·II, 생물 I·II, 지학 I·II 등 총 8과목에서 최대 4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 결과 심화과목인 과학II 과목은 학생들이 선택을 외면하게 되었고, 선택되지 않은 과목은 학교수업에서 외면 받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면서 “실제로 과학II 응시생은 2012년에는 전체 수능 응시생의 23.51%였으나 2017년에는 불과 5.26%만이 과학II 과목을 응시한 것으로 나타나 5년 전에 비해 1/4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구과학I 개별과목 응시생 수 역시 2012년에 비해 약 각 1/6, 1/10, 1/5, 1/3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지난 8월 10일 교육부가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명분으로 발표한 수능개편안은

통합사회-통합과학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사회-과학-직업군에서 1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심화과목인 물리II·화학II·생명과학II·지구과학II를 수능의 선택범위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다. 이처럼 선택과목의 수를 줄이고, 범위를 제한하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학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고1 수준 출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능을 외면할 수 없는 학교 현장에서는 △고3 수업이 고1에 배웠던 것을 수능과목을 다시 무한 반복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중학교 단계에서 수능 준비 선행학습을 실시하는 학생들이 많고, △고등학교는 국어와 수학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교육이 더욱 기승

을 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과학 심화 과목을 진로 선택과목으로 분류해서 이수 가능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주장도 비현실적이다. 학생이 선택하고 싶은 과목의 과학교사가 없거나 과목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성취도와 흥미도를 떨어뜨리고, 상위권과 하위수준 학생의 격차만 벌어지게 만들 것이다. 현실적으로 충분한 교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교화점제를 도입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세정 의원은 “과학과 사회의 학습범위를 최소화시킨다고 융합형 인재가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며, “심화학습 없이 쉬운 내용만 반복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려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적 창의력을 기를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어야 한다. 현 정부는 이러한 목표로 교육정책을 이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 출범 예정인 만큼,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획을 토대로 ‘국가교육회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다스린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며 “민일 수능에 과학II를 넣기 어렵다면 최소한 학생들의 과학심화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이 그 교육혁신의 출발점이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지름길임을 각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 文 대통령 “국민이 국정운영 가장 큰 힘”

###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히고,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됐다”며 “이제 나라를 위한 헌신과 애정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결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으며 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물결을 돌렸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사업 확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이며 건 강보훈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 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며 “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등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를 추가경정예산도 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 중요한 노력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펴겠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지나고 나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우리 국민은 반 년에 걸친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고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함께 주셨다. 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가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 세한대, 중국 청도시에 다도해컵 국제 요트대회 홍보

## 양국 간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는 지난 8월 11일~13일 중국 청도 올림픽 마리나에서 열린 국제 청도 범선 축제에 초청받아 중국 청도시를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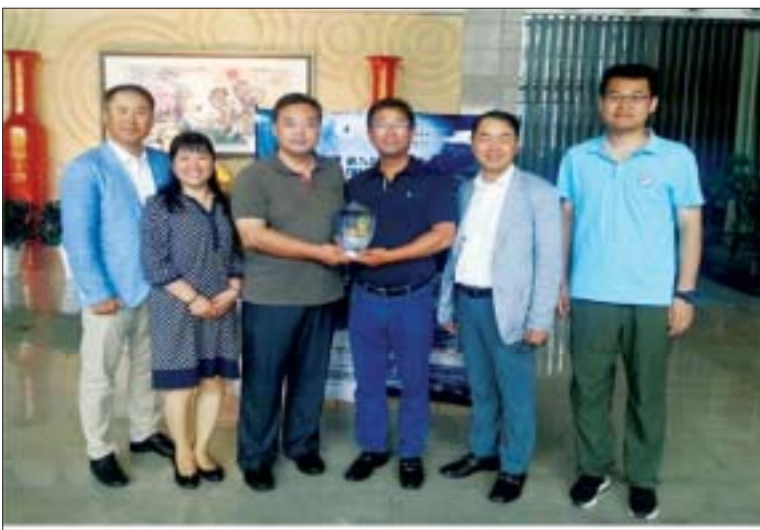
이번 방문에서 박희석 세한대 체육부장, 이영오, 오태식 세한대 교수 등은 청도시 관계자 및 청도 범선협회 왕보기 회장을 비롯한 대회 참가자들을 찾아 전남 다도해에서 열리는 ‘다도해 컵 국제 요트대회’ 홍보를 위해 진행했다.

이날 방문에서 중국청도범선협회 왕보기 회장은 “청도-목포 간 실시되는 원동 컵 국제 범선 경기 기간에 맞춰 전남 다도해에 실시되는 다도해 컵 국제 요트대회에 10여 척의 요트가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최미순 목포시 요트협회장(다도해 컵 조직위원장)과 청도범선협회 왕보기 회장이 환황해권 요트 루트 확보와 해양레저 산업 및 스포츠의 활성화를 증대시키고 양국 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양 국가 간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 기여로 엠버서드 프랜십 패를 수여받았다.

한편, 올해 5회째를 맞는 ‘2017 다도해 컵 국제 요트대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목포와 흑산도, 홍도 수역에서 진행된다. 7개국(한국, 러시아, 중국, 호주, 프랑스, 싱가포르) 300여 명의 선수



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흥미롭게 진행될 예정으로 어느 해 보다 풍성하고 흥미 넘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주최하고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SRI)해양레저 특성화사업단에서 주관하

는 대회로, 해마다 목직지를 달리 해 그 지역의 Sea Story를 개발하고 수려한 다도해의 풍광을 알리는 대회로 요트인들에게 알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라남도의 주요한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진=최근수 기자

## 취업서 창업까지 일자리 지원 확대

### 한국폴리텍대학, 제1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개최



한국폴리텍대학이이사장 이우영, 이하 폴리텍은 1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폴리텍 서울 정수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제1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기술력에 창의력을 입혀주고, 기업가 정신을 심어 실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열려 해 처음 개최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벤처창업아이템을 주제로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이 기계부품 IT, 식품, 패션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창업아이템을 개발했다. 미세 단정정보를 제공하는 IoT 기술이 접목된 가로등, 태양광 발전과 LED 광원을 활용한 친환경 가정용 채소 재배기, 드론 활용 사지 촬영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6월 치열했던 8개 권역별 예선을 통해 총 212명으로 이뤄진 40개 팀 중 22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7월에는 예선화에 적합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1박 2일간의 멘토링 캠프도 준비됐다. 아이디어 수준의 기존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멘토링 시간도 이

어졌다. 멘토링 캠프이후 한 달여간, 팀별 시제품 제작과 제품 시연을 위한 작업이 진행됐다.

16일 열린 본선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시제품을 선보이고, 제품 시연도 이뤄졌다. 제품 생산 계획과 앞으로의 사업 확장 계획도 포함된 완성도 높은 사업 아이템이 발표됐다.

심사는 창업 분야 전문가인 중앙대 김진수 교수 등 8명의 전문가가 맡았으며, 실제 사업화 가능성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성 등의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고 수상작을 선발했다.

본선에 진출한 22개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대상은 헬멧 방향시야각에 따라 보조전조등의 조사각을 변화시키는 ‘바이크 전조등 스마트 조향 시스템’을 개발한 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계과의 ‘시그널테크팀’에게 돌아갔다.

대상을 수상한 ‘시그널테크팀’의 이근욱 학생은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연구개발이 왜 필요한지, 기술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된 뜻깊은 자리였다. 학생으로서 배우기 어려운 것을 배웠고 값진 경험이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금상은 그룹 스포츠를 즐기

는 구성원 간에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시각화, 공유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함께 즐기는 스포츠 도구, W-Band’를 개발한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융합SW과의 ‘스포텍팀’과 ‘고속도로 투척형 무선 조종 경보기’를 개발한 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의 ‘창업유망주팀’이 수상했다.

대상 1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과 100만원의 상금, 금상 2팀은 창업진흥원장상과 벤처협회장상, 각각 7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은상 3팀과 동상 8팀은 이사장상과 50만원,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22팀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벤처 창업 분야 전문가 4인의 전문가 토크쇼가 이어졌다. 중앙대 김진수 교수가 벤처 창업 절차, 중앙대 윤영보 박사가 창업성공사례, 벤처협회 김영수 전무가 한국 벤처기업 현황을, 그리고 생산연구원 신승우 센터장이 벤처창업 기술현황을 소개해 청중을 준비하는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폴리텍은 ‘15년부터 ‘발명과 창업’이라는 교과를 도입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대학발명협회와 함께 매년 발명특허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창의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이사는 “일마 전 다녀온 창업 강국 이스라엘과 핀란드에서 직업훈련 과정에도 기업이 정신을 키워줄 교육이 필수라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대회가 그 첫 열매로 학생들이 도전적인 창업아이템들을 개발해냈다.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이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복 기자

##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잇단 착공

### 연동면복합 9월 착공, 면사무소 등 배치... 2019년 4월 오픈



세종시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실질적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커)와 지방자치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복커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도시를 비롯해 읍면지역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건립하고 있으며, 한솔동 복커 기능보강과 연동면 복커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의회의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무소가 입주할 지방자치회관도 9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한솔동 복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비 247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복커의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자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바닥 패어를 한글을 디자인화 한 ‘세종길’을 설계에 반영

를 거쳐 위치와 공간계획을 확정했다.

한옥의 처마와 한글 ‘미음’자 형태로 한옥의 안마당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총사업비 128억원(기부입: 부지매입 및 설계비 35억 / 2017년 공사·감리비 36억 확보 / 2018년 추가부지 매입 및 공사비 57억) 확보 예정이었다.

주요시설로 면사무소, 보건지소, 농업기술상담소 및 복합체육공간과 주민자치공간 등을 배치하였고, 다목적강당에는 배드민턴 코트 3개면을 설치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확보했으며 지난 7월 설계역역을 완료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오는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4월 개관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자치회관은 사업비 26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도지사의회의와 논의를 거쳐 설립근거인 정관을 마련하였으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건립위치 및 시설, 면적 등을 확정했다.

시·도지사회의 및 16개 광역시·도와 기초단체 사무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업무공간, 회의실 및 카페 등 편의시설을 배치했으며 지난 7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 여미교차로~운산교차로 구간 전면교통제한

## 서산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 교량 가설 위해... 1시간 간격으로 10분씩 총 6회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본부장 권오철)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국도32호선 운산교차로~여미교차로 구간에 서산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의 교량가설을 위해 1시간 간격으로 10분씩 총 6회 전면 교통제한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산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날로 늘어나는 서산지역 교통량으로 인한 서산 나들목 지정체 해소를 위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국도32호선으로 직접 연결로를 개설하는 입체화공사이다.

관계자는 "국도32호선 전면 교통제한에 따른 지·정체 시에는 인근 지방도를 통해 우회하고, 공사구간 통과시에는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배기자

# 충청남도 으뜸아파트 공모 공고

## 10월 31일까지 접수... 전국 최초 임대아파트 부문 신설

충남도는 17일 아파트마을의 공동체 활성화와 친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홈 으뜸아파트' 공모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특히 올해부터 임대아파트 부문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시범 시행하는 그린홈 으뜸아파트는 아파트 입주민간 화합과 공동체 문화조성, 에너지 절약실천,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관리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해당 지역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지평가를 거쳐 분양부문 2개 단지, 임대부문 2개 단지 등 총 4개 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그린홈 으뜸아파트의 주요 평가항목은 ▲관리의 투명성 등 일반관리 ▲장기수선 계획 수립, 안전관리 등 시설 유지관리 ▲주민자율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형성평가 등 5개 분야이다.

그린홈 으뜸아파트로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는 인증서와 인증패와 분양부문 3천만원, 임대부문 1500만원의 시설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그린홈 으뜸아파트는 임대아파트 부문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시범시행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이웃과 단절된 주거공간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우리가 사는 마을이라는 인식이 높아져 서로 단지 내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도=김정한기자

# 찾아가는 일자리·노동상담실 운영 아산시, 600세대 이상 아파트 6곳

아산시는 오는 31일부터 노동상담소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주민 밀집지역 600세대 이상 아파트 6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찾아가는 일자리·노동상담실 운영을 재개한다. 31일, 모종한성 1차APT를 시작으로 9월 6일 신도브레뉴 APT, 9월 14일 온천마을APT, 9월 21일 용화공공3차APT, 9월 28일 장재마을휴먼시아11단지APT, 10월 12일 한라동백 APT일정으로 실시한다.

하반기는 아산시청 산하 5개 기관이 참여하며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구직 등 일자리상담을 진행하고, 아산의 국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시노사민정협의회, 아산시노동상담소는 외국인 생활지원 및 노동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청·장년층 및 여성의 일자리문제 해결, 외국인노동자 해고 등 노동문제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동일하이빌APT, 샘마을APT, 신라APT, 음봉포스코APT, 자이1차APT, 흥익APT 등 6곳을 대상으로 취업 및 노동상담을 진행해 총 11건의 노동상담으로 권리구제 및 임금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운영시간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이며, 상담 장소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이다. 상담일에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041-540-2839, 010-9251-5125로 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취업에서 창업까지 일자리 지원 확대

한국폴리텍대학이 사장 이우영, 이화폴리텍)은 1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제1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기술력에 창의력을 입혀주고, 기업이 정신을 심어 실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벤처창업아이템을 주제로 제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이 기계부터 IT, 식품, 패션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개발했다.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IoT 기술이 접목된 가로동, 태양광 발전과 LED 광원을 활용한 친환경 가정용 청소 재배기, 드론 활용 사진 촬영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6월 치열했던 8개 권역별 예선을 통해 총 212명으로 이뤄진 40개 팀 중 22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7월에는 예선을 통과한 아이템을 보다 사업화에 적합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1박 2일간의 멘토링 캠프도 준비했다. 아이디어 수준의 기존 아이템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팀 빌딩 수업과 전문가의 멘토링 시간도 이어졌다. 멘토링 캠프 이후 한 달 여간, 팀별 시제품 제작과 제품 시연을 위한 작업이 진행됐다.

16일 열린 본선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시제품을 선보이고, 제품 시연도 이뤄졌다. 제품 생산 계획과 앞으로의 사업 확장 계획도 포함된 완성도 높은 사업 아이템이 발표됐다. 심사는 창업 분야 전문가인 중앙대 김진수 교수 등 8명의 전문가가 맡았으며, 실제 사업화 가능성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성 등의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고 수상작을 선발했다.

본선에 진출한 22개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대상은 헬멧 방향(시아각)에 따라 보조전조등의 조사각을 변화시키는 '바이코 전조등 스마트 조향 시스템'을 개발한 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계과의 '시그널테크팀'에게 돌아갔다.

금상은 그룹 스포츠를 즐기는 구성원 간에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시각화, 공유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함께 즐기는 스포츠 도구, W-Band'를 개발한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데이터융합 SW과의 '스포츠팀'과 '고속도로 무척

형 무선 조종 경보기'를 개발한 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의 '창업 유망주팀'이 수상했다.

대상 1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100만원의 상금, 금상 2팀은 창업진흥원 장상과 벤처협회장상, 각각 7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으며, 은상 3팀과 동상 8팀은 이사장상과 50만원,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22팀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에는 벤처창업 분야 전문가 4인의 전문가 토크쇼가 이어졌다. 중앙대 김진수 교수가 벤처창업 필치를, 중앙대 윤형보 박사가 창업성장사업, 벤처협회 김영수 전수가 한국 벤처기업 현황을, 그리고 생산연구원 신승우 센터장이 벤처창업 기술 현황을 소개해 창업을 준비하는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폴리텍은 '15년부터 '발명'과 '창업'이라는 교과를 도입해 학생들이 학과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대학발명협회와 함께 매년 발명특허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창의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도공 '장애인 운전지원' 애플리케이션 개발 완료

## 대전면허시험장, 배재대 등과 협업으로 6개월 걸쳐 완성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순도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운전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운전지원]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장장 정우택)이 개발한 이번 [장애인 운전지원] 애플리케이션은 국내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운전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은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배재대 ICT융합세일센터, 배재대 대덕밸리캠퍼스, (사)빅데이터·정보보호융합기술협회, NCS파트너와 협업으로 약 6개월에 걸쳐 개발했으며 이 애플리케이션은 지난달 시범운영을 거쳐 완성됐다.

장애인 운전지원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장애인 운전지원"을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지난 2013년 부산남부 면허시험장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로 ▲14년 전남·용인, ▲15년 서울강서, ▲16년 대전, ▲17년 대구 면허시험장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총 6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송병배 기자



# 청양군 돌발해충 골드타임 동시방제 현장지도 '총력'

청양군이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돌발해충 집중방제 현장지도에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돌발해충들이 성충이 되면서 방제가 소홀한 과원이나 주변 산림에 밀도가 높아질 것이 예상되자 오는 20일까지를 집중방제 골드타임 기간으로 정했다.

돌발해충은 사과, 배, 복숭아, 오디, 대추, 포포나무 등 대부분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며 밀도가 높을 때는 들개, 비 등에도 피해를 준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돌발해충의 산란기인 8월 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사과, 배, 복숭아, 오디, 왕대추, 알프스오도메, 포포나무 과수연구회 농가를 중심으로 방제단을 구성해 자율방제 실천을 독려하고 현장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되도록 이웃농가와 공동방제 할 것을 당부했다.

# 국가기술훈격검정 기사 제4회 필기시험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분부는 다음달 23일 시행하는 국가기술훈격검정 기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를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필기시험 원서접수종목은 건설안전 기사 등 88개 종목이며 원서접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나 대전지역본부 홈페이지(http://hrdc.hdkorea.or.kr/trdc/daejeon) 혹은 대전지역본부 전화(680-9131~8), HRD 고객센터(1644-8000)로 안내받을 수 있다.

(042)538-3030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 운영

아산시, 현장 규제 애로사항청취 및 해소 위해



아산시가 지난 16일, 관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현장 규제 애로 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이날 관내 중소기업인 비월드(자동차부품제조), 삼아인터내셔널(과자류제조), KMP(프렛인쇄물) 방문해 중소기업 투자 촉진 및 고용 저해 사례 등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자금, 판로, 기술개발, 인력 지원, 규제개선 등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삼아인터내셔널에서 접수된 '명칭특성상 배합기, 포장라인 같은 설비나 생산라인을 일체 적구조로 설비할 경우 공장 건폐율 적용 완화 건의' 등 총 5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중소기업 담당부처에 건의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공 추진 다짐

공주시, 3기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 부서장 보고대회 등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내년부터 3년 간 시행되는 충남도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관련 부서장 보고대회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저성장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공주시를 비롯해 도내 8개 시·군이 지난 2월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됐으며 3기 사업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시는 3기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산업인 공주밤산업 활성화,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 정주여건 제고를 위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안전도시 구축,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행복마을 조성, 어린이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문화공간 조성 등 총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280여억원 규모의 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에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4일 오시덕 시장의 주재 하에 3기 사업을 위한 부서 보고회를 열어 11개 제안사업에 대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서의 관심도를 높이는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현재 11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10월 중 충남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주=정성범기자

# 2017 충남새농민 한마음전진대회

충남새농민회 가족들 논산서 '화합한미당' 개최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천형)와 (사)한국새농민충청남도회(회장 김기덕)는 17일 논산시 소재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충남새농민회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다짐과 함께 회원 상호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허승욱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윤석우 충남도 상생·성장, 김형도 논산시의회 의장, 도내 농업 시·군지부장 및 농·축협 조합장, 이성희 한국새농민중앙회장과 새농민회원 등 9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충남새농민 한마음전진대회는 (사)한국새농민충청남도회가 주최하고 논산시회(회장 남기상)가 주관해 회원간의 화합을 다지고, 신영농기술정보 교환과 선진영농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결의하고자 마련됐다.

김기덕 충남새농민회장은 "앞으로도 지립·교향·협동의 새농민 3대 정신에 충실하고 소통과 상생으로 살기 좋고 희망과 비전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는 충남새농민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시원한 여름나기 아이템, 아이스크림 디자인 출원 활기

## 특허청, 아이스크림 분야 디자인출원... 지난해보다 빠른 증가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와 함께 최근에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뿐만 아니라 중소형 카페들도 아이스크림을 주력메뉴로 삼으면서 아이스크림 시장규모와 수요가 확대되며 아이스크림 관련 디자인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분야 디자인출원은 2011년에는 22건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68건으로 3.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7.6) 기준도 58건이 출원돼 지난해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스크림 형태별 디자인출원은 2011년 11건에서 2016년 39건

으로 지난 6년간 3.5배 증가했고, 아이스크림 용품별 디자인출원은 동기간 11건에서 29건으로 2.6배 증가했다.

아이스크림 형태, 용품별 디자인출원 현황은 아이스크림 형태별 디자인출원 현황은 콘형 아이스크림이 이전 3년간('11년 ~ '13년) 16건에서 최근 3년간('14년 ~ '16년) 41건으로 2.6배 증가했다.

동기간 케익형 아이스크림은 9건에서 30건으로 3.3배, 빵형 아이스크림은 6건에서 17건으로 2.8배 증가해 아이스크림 출원증가를 이끌었다.

아이스크림 용품별 디자인출원은 아이스크림 용기 54.4%, 아이스

크림 포장지 18.4%, 아이스크림 제조기 11.2%, 아이스크림 성형기 3.9%로 나타나고 있다.

출원인 유형별 디자인출원 현황은 아이스크림 분야 디자인출원은 최근 6년 동안 전체출원의 78.4%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및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그 중 중소기업의 출원이 2016년에는 2011년 대비 5.6배 증가했다. 대기업의 출원도 롯데제과 28건, 해태제과 13건, ㈜빙그레 6건 등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이스크림의 형태도 용도와 취향에 따라 변화되었는데, 단순히 용기에 담겨야 막대에 꽂은 바(Bar)형 형상에서, 콘(Cone)형, 튜브(Tube)

형, 구슬형으로 변모했다. 과자, 빵, 케익 등을 함께 먹는 빵형, 케익형 아이스크림이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웰빙에 대한 관심으로 별꿀, 생과일, 요거트를 가미하거나 유기농 원료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 최규원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지털문화의 발달에 따른 수요 및 관심이 커지면서, 아이스크림 분야 디자인출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맞춰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맛과 형태의 아이스크림 디자인 출원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박봉관기자

백석대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중)는 17일 교내 백석홀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사학위 425명, 석사학위 325명, 박사학위 35명 등 총 785명이 학위를 수여했으며, 실선신학대학원 ATA 과정에서 68명, 백석 후마니티스 최고위(CEO)과정에서 53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특별히 백석 후마니티스 최고위 과정의 첫 번째 졸업생들이 배출돼 눈길을 끌었다. 백석 후마니티스 최고위 과정은 문화와 교양, 인문학과 비즈니스를 커리큘럼으로 하며, 기업 및 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환기자

# 레이저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 위해 업무협약

단국대병원 레이저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레이저옵텍



단국대병원(병원장 조종태) 레이저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인 ㈜레이저옵텍과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정필상 레이저중개임상시험센터 소장과 주홍 레이저옵텍 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는 레이저 광의료기기의 시제품 개발 및 전임상 및 임상시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

으며, 이를 통해 국내 레이저 광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단국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는 2008년 설립 이후 다양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과 네트워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레이저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5년간 국비 75억 원을 지원받아 레이저 광의료기기

특화 중개임상시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레이저 광의료기기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레이저옵텍의 PALLAS(엔디야그 레이저수술기) 기기에 대한 단국대병원 피부과 의료진(홍승필 교수)의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

정필상 센터장은 "레이저 광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업체를 위해 병원 자체의 기술력으로 임상시험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할 것이며,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임상시험을 중개 지원함으로써 선진국의 광의료기기에 대한 대체 효과를 꾀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개발 및 기획 단계에서 임상시험도 참여해 사용자 중심의 의료기기를 개발할 예정이며, 제품의 상용화 단계에서도 개발에 참여한 임상시험의 논문 및 학술 발표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김정환기자

# 당진의 발전 이끌 시책 사업 발굴 '본격 돌입'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발전 이끌어가기 위해

당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 2018년 시책사업 발굴에 본격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시책에는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민선 6기 약속사업과 아동·여성 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중점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서별로 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

로 지난 4월 1차 시책자료 구상을 완료했으며,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정책자문위원회의 분과별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구상안을 이달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당진시의 다양한 현안들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 관련 사업을 중점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서별로 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

년 문화의 집 참여기구 소속 청소년 100여 명이 참여해 '미래의 주역 청소년이 당진시에 제안합니다'를 주제로 ▲참여와 시민의식 ▲먹거리 ▲주거환경 및 자연 ▲관광 및 교육환경 ▲일자리 ▲삶의 질 향상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분과별 토론회를 진행한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도 22일부터 진행되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수정과 보완을 통해 다듬어진 다음 추진 가능한 사업들은 부서별 시책사업에 포함되게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 청양군, 다함께 행복한 치매가족 삶 만들기 앞장

'넘버원 청양, 넘버원 가족' 만드는 치매환자 가족 자조 모임 운영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치매환자 가족 자조 모임 운영으로 다함께 행복한 치매가족 삶 만들기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청양군은 노령인구 31%로 전국에서 최고령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2015년 510명 ▲2016년 641명 ▲2017년 현재 818명으로 매년 치매환자가 100여명 가량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교육이 미비해 환자의 건강관리가 매우 어려우며, 부양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해 2차적 가족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군 보건의료원은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사례별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간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자 '넘버원 청양, 넘버원 가족' 자조 모임을 마련했다.

상반기 치매진단자의 치매진행 완화 및 치료를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두뇌깨우치기'를 운영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에는 치매환자 만족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치매사업 선진지역 호그백 마을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0421538-3030

# '안단테(Andante)' 멘토링 프로그램

건강대병원, 난임·반복유산 환우 위해 시행



건강대병원(원장 최원준)은 17일 난임·반복유산 환우를 위한 '안단테(Andante)'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난임 및 반복 유산으로 인해 각종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지적, 지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의료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치료과정에서 벗어나 환자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막막함,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난임 부부의 희망전도사로 알려진 건강대병원 산부인과 이성이 교수와, 환자들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사회사업팀이 함께 기획해 이루어졌다.

특히 '안단테'에 참여한 20여명의 환우가 이성이 교수와 함께 치료과정에서 궁금한 내용과 개인적인 고민 등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고, 요가활동과 원예 감상 등의 활동을 통해 관련지식을 얻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게 된다.

박봉관기자

# 아산시 최초 '행복키움 복지학당'

탕정면 '마음을 보듬어 주는 복지 상담기법' 주제로 개강



아산시 탕정면(면장 유종희)은 지난 16일, 탕정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마음을 보듬어 주는 복지 상담기법(스피치)'이라는 주제로 '제1회 탕정면 행복키움 복지학당'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강한 '탕정면 행복키움 복지학당(미니강좌)'은 아산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전국 선도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탕정면 행복키움이 더욱 체계적이고 더욱 전문적인 '민간 사회복지사'로 재무장을 위해 마련됐다.

대안 지식을 쌓는 것도 봉사의 기본지식을 갖추는 것이라는 단원의 요청으로 탕정면 행복키움추진단 주관해 자체 개설하게 됐다. 이제는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부하는 복지, 배우는 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탕정 행복키움이 되고자 '격월 1회 셋째 주 수요일'에 복지학당을 정기 개최해 전국 선도모델로서 손색이 없는 행복키움을 만들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보급에 총력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가 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 저감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대전보훈청, 청렴 설문조사 실시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운진)은 지난 14일~16일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공직자가 체감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계룡산국립공원, 국민 참여 외래식물 제거 행사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영재)는 지난 16일 민족태이동로 일원에 유입된 외래식물 제거를 위한 국민 참여 외래식물 제거 행사를 실시했다.

###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예산소방서, 자율안전관리능력 강화 위해 서비스 실시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작동기능 점검기구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지 못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해 많은 비용이 드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산소방서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작동기능 점검기구 대여장구를 운영하며 점검기구 무상 대여와 사용방법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비대여를 희망하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3~5일간 사용 후 반납하면 된다.

장비 무상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소방서 예방교육팀(330-4265)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양성업기자

### '암검진 실시 강조기간' 운영

건보공단 대전본부, 암검진 미리받고 선물도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임재홍)는 암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여 국민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21일부터 9월30일까지 '암검진 실시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운영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을 받은 대전·세종·충청지역 가입자들 500명을 추첨해 건강용품 등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11월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공단 건강관리부(042-605-7443)로 문의하면 된다. 송병배기자

###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감사국

## 공주 의당농협 솜방망이 처벌 주장 제기

공주 의당농협이 최근 퇴비보조금관련사건, 외상매출 허위작성으로 대금유용사건, 직원폭행사건 등 일련의 크고 작은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감사국의 감사결과와 의당농협에 취해진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당농협의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한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감사국은 감사결과와 주의·경고의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당농협 대의원 A씨에 따르면 "농협 직원이 퇴비지원사업과 관련 조항명의를 도용해 천안으로 퇴비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으며, 외상매출을 허위로 작성하여 시작으로 대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직원을 사직시켰다"며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터지는 등 조항원 명의를 도용해 횡령하는 일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농협의 자체 감사나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감사국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벌내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이런 식으로는 의당농협이 발전할 수 없다."며

"이번기회에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발전하는 의당농협을 만들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의당농협 조항원 B씨는 "수년전에도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해 비리로 장난을 치더니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농협 직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개탄했다.

또한 복수의 조항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항원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로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있어 누가 와서 알려주지 전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며 "과연 우리가 농협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현실이 이런데도 이런 농협직원의 조항원 명의도용사건과 관련해 농협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어 더욱 패심하다."고 말했다.

의당농협 관계자는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불거져 농협이 시끄러운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모든 것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농협 직원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농협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 태안소방서, 자살기도

#### 10대 학생 구조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 구조대가 아파트1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기도하려는 10대 학생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전했다.

태안소방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7시경 태안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구조대는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아파트 1층에 에어매트를 설치했으며, 열방 창문에 구조로프를 전개하여 자살 시도를 막았다. 구조된 학생은 외상은 없었으며, 부모님과 다룬 뒤 우발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김정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경찰개혁 추진체계 격상·재정비, 경찰개혁 박차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위원회」 발족 등

경찰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경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청 내 「경찰개혁 추진TF」를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찰개혁 추진체계는 관련 기능별로 개혁의 분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청 차원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속도감있고 강도 높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경찰청 차원이 개혁 전

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개혁 추진체계를 격상·재정비하기로 하였다. 먼저, 경찰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고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경찰개혁 추진TF ▲수사구조개혁단 등 개별 추진단을 통합하여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경찰개혁 추진본부」로 격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을 부본부장으로 지정하여, 기능 간 협의·조정·조율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차장 주재로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 발굴 ▲실행 계획 마련 ▲추진상황 점검 등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개혁위원회와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수사경찰의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찰수사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사개혁 추진체계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수사개혁 업무 총괄을 기존 수사구조개혁단에서 수사국장으로 격상하는 한편,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수사구조개혁단과 별도로 수사제도개편단을 신설·보강할 계획이다. 박봉관기자

### 아산시보건소, 레지오넬라페렴 예방 환경관리 철저 당부

냉방기와 급수시설 관리 등 환경관리 철저 해야

아산시보건소(소장 김기봉)는 여름철 냉방기 사용 등의 증가로 레지오넬라페렴 발생이 급증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따라 우리시민이 냉방기와 급수시설 관리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레지오넬라페렴은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수도꼭지, 분수 등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되며, 연중 산발적으로 발생하나 냉방기 가동과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집중발생 시기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냉각탑의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 ▲냉각탑은 가능한 건물출입구 또는 공공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하며, 의료기관 및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공급수 관리 강화 ▲급수 수관에 소독제 잔류지속 및 급수 수

온관리(냉수 20°C이하, 온수 50°C 이상 유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 환자 구역의 철저한 관리 ▲의료용 분무기, 가습기 등 사용 시 멸균수 사용 등 환경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산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은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레지오넬라균의 조기 인지와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하절기 다중이용시설의 환경수계 검사 실시와 대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산=리량주기자

### 당진소방서, 소중한 생명 구한 시민 하트세이버 수여

신평면 신흥리 이재소 시민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심장지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신평면 신흥리 이재소 시민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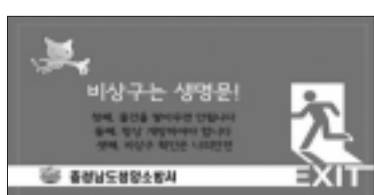
이날 하트세이버에 선정된 일반인 이재소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0시쯤 신평면 신흥리 마을에서 같이 이야기 하던 이웃주민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 귀중한 생명을 소생시켰다.

하트세이버를 수여받은 이재소 시민은 "평소에 CPR을 응급처치에 관심이 많아 유심히 봐두었는데 이렇게 사용할 줄 몰랐다."며 "가족과 같은 이웃주민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방상천 당진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에 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청양소방서, 불법행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운영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탁시설, 판매시설, 과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비상구 폐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으로 지역에 거주한지 1개월 이상된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청양=정성범기자



효인주야간노인복지센터

### 보양식으로 말복행사 '웃음꽃 활짝'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느낌이 들고 한낮은 뜨거운 열기가 여름을 불지지만, 삼복더위에 많이 지치셨을텐데 삼계탕을 드시고,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카신모터스(대표 김용이)은 월평동 소재 효인주야간노인복지센터(원장 이진숙)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삼계탕, 과일 등 직접 대접해 어르신들께 웃음을 안겨 주었다.

김용이 대표는 효인주야간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 손을 잡아 드리며 많은 대화를 나눔 때 행복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날도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드리며 일일이 손을 잡아드리면서 건강하시도록 인사말을 올렸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아 자주 어르신들을 뵈러오겠다고 하면서 금일봉을 후원해 어르신들께서 환호성과 박수 갈채를 받았다. 김태성기자



기찬수 병무청장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방문

### 정책현장 방문 소통의 시간 가져

기찬수 병무청장은 17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을 방문, 민원실, 병역판정검사장 등 업무현장을 두루 돌아보며 병무청을 찾은 입영대상자 및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원 및 전담의사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처분은 물론 병역판정 검사 과정의 감시체계도 더욱 확고히 해 병역면탈 사안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송병배기자

특히, 기 청장은 검사장에서 직

### 화재 없는 캠핑 위한 안전교육 실시

부여소방서, 관내야영장 및 캠핑장관계자 7명 대상

부여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지난 16일 오후 관내야영장 및 캠핑장 관계자 7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에 따라 관내 캠핑장 관계자들에게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계자들에게 캠핑장 화재사례 소개와 화재의 특성,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방법, 소화기 사용법과 인명대피방법 등을 교육했다.

최근 관내에 글램핑장이 개장하는 등 피서객의 증가가 예상됨

# 2030세대 절반 “내 여가시간은 저녁 9시부터”

## <인쿠르트>조사결과... ‘여가시간 활용’ 위해 잠을 늦게 잔다고 답한 비율 32%

요즘 청년들의 휴식은 '여가(餘暇, leisure)'라기보다는 야가(夜暇, night rest)에 가깝다. 2030세대 10명 중 8명은 1주일에 최소 1번 이상은 늦게 잠들거나 야에 밥을 먹고, 하루 시간 중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저녁 9시가 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인쿠르트(대표 이광석)가 진행한 2030 스트레스 해소법 설문조사 결과다.

가장 먼저, 응답자들에게 밤을 새우거나 저녁 12시 넘어 잠드는 빈도에 대해 물었다. '1주일에 5회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주일에 2회'(19%), '1주일에 3회'(16%), '1주일에 1회'(13%), '1주일에 4회'(10%) 순의 답변이 이어졌다. 밤을 새우거나 늦게 자는 일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9%에 그쳤다.

그렇다면 이들을 잠 못 들게 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학생/취업 준비생들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생긴 습관성

잠샘/늦잠(35%)을 주범으로 꼽았다. 이어 '과제/시험 준비 등을 포함한 공부(22%)', '스펙 제고, 이력서 작성 등을 위한 취업준비활동(20%)', '취미생활,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여가시간 활용(12%)' 순의 답변율을 보였다.

직장인 역시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생긴 습관성 잠샘/늦잠(33%)을 문제 삼았다. 정규 근무 시간 내 처리하지 못한 잔여업무 처리(14%), '사회생활을 위한 회식 자리 참석(7%)' 등도 직장인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보다 더 특기할만한 사실은 '취미생활,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잠을 늦게 잔다고 답한 비율도 3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학생들과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30세대의 53%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골든 타임으로 밤 9시~12시를 꼽았다. 일반적으로 업무나 학교 수

업이 종료되는 '오후 6시~밤 12시' 사이를 활용하는 비중도 26%로 높았다. 젊은 세대 10명 중 8명 꼴로 일과 이후의 시간을 자신만의 여가로 채워나가는 모양새다.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그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던 '가족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은 '개인 중심의 라이프스타일'로 변화해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청년들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에 염매(憂悶)기보다는 '당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극악의 취업난이도'와 '워라벨 붕괴'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행소(幸笑) 및 직장에서 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은 '조금 받는 편(51%)'이라고 답했고, '매우 받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2%로 결코 낮지 않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2030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늦

은 시간이라도 '숨 쉴 수 있는 구멍'인 것. 때문에 '숨 쉴 구멍'의 최후의 보루인 '야간 문화'에 접목하는 빈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문화(클럽) 경험한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은 단 1%로,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부족거리는 낮보다는 밤 시간대를 활용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관련해 '어떤 문화를 접했는지'를 묻자, '술집/유흥주점'이 18%로 단연 높았고 '편의점 앞에서 도시락이나 음료수/맥주 한 캔을 먹었다'와 '노래방'이라는 답변이 각각 12%로 드러났다. 이어 '심야 영화관(11%)', '24시간 커피숍에서 수다(10%)', '스크린 야구/필름 등 실내운동(10%)', 'PC방/오락실(9%)', '농구, 배드민턴, 자전거 라이딩 등 실외운동(7%)', '야시장(6%)' 등의 답변이 나와 2030을 주축으로 한 현대 야간 문화의 넓은 스펙트럼을 가늠해 주었다.

이정복기자



##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및 자체예행연습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을지연습 추진 위해 전직원 대상 실시되는 금번 을지연습기간에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종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관계요원의 전담수행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동안

논산=김태선기자

## 공주교육지원청, 2017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 개최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은 지난 16일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2017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을지연습 참여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을지연습 이해 제고 및 사전 분위기 조성으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을지연습의 주요훈련은 21일 공무원 비상소집 및 안보강연, 22일 비밀문서 반출 및 심폐소생술 훈련, 23일 민방공대피 및 핵위협 대응 훈련, 24일 학교재배치 훈련 등이 실시된다.

또한 안보강연, 군장비·한국전쟁영화 포스터·북한물품 등 전시회를 준비했으며 관립이나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 숲체원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숲속 작은 음악회’ 개최

산림교육 전문시설인 국립형성 숲체원 등에서 숲속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운영)은 19일과 내달 7일 강원도 횡성군 문내면 국립형성숲체원에서 산림청 개청 50주년 기념 숲속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산림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9일(오후 2시)에는 관객과 소통하는 신기한 미술쇼가 진행된다.

이날 공연에서는 '미술사 흥창종'이 출연, 숲속에서 다양한 도구로 펼치는 수준급 저글링(juggling, 물건을 가지고 잡다한 놀이의 기술이나 재주를 부리는 것)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내달 7일(오후 2시)에는 '핑크피쉬'라는 2인조 어쿠스틱(Acoustic, 음향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것) 기타 밴드가 출연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정적인 음악을 제공한다.

송병기자

## 대전교육청, 대전해광학교 학교기업 증축 공사 16억여원 지원

오는 12월 초까지 증축 공사 마무리, 진로탐색 및 직업 실습 기회 확대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해광학교 학교기업 '해오름관'의 교실과 실습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6억 원의 지원, 현재 3층인 해오름관을 5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오는 12월 초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해광학교 학생에게 보다 나은 직업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대전 지역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에게까지 진로탐색과 직업 실습의 기회를 확대해 '특수학교 학교기업 체원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다.

해광학교 학교기업은 2009년, 전국 특수학교 최초로 학교기업으로 '파인잡'을 등록해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돕고 있으며, 질 좋은 원료와 저렴한 가격으로 카페, 천연비누, 운동화 세탁 등을 운영해 판매 수익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비, 장학금 및 시설 유지 개선비용 등에 재투자하고 있다.

또한, 학교기업 카페 '플'에서는 매월 바리스타데이를 운영해 바리스타 자격증반 학생들이 직접 커피와 음료를 만들어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지역주민을 초청해 자

## 2017 을지연습 실시로 교육분야 비상대비태세 확립

세종시교육청, 교육분야 비상대비태세 확립 훈련 목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분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훈련목표로 오는 21일(월)부터 24(목)까지 3박 4일간 「2017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연습은 21일(월) 불시 전 직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전시계획의 실효성과 임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세종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300여명이 실제훈련(소산·이동 훈련, 학교 재배치 훈련, 임시교실 설치 훈련 등), 도상연습,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과 생화학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23일(수)에는 전 학교에서 민방공대피훈련을 실시하며, 두루고등학교에서는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식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이정복기자

##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원 대상 교통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

홍성교육지원청, 관내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원 60여명 대상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옥심)은 2017년 8월 16일(수)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공사립 유·초등학교 및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원 6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는 홍성군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조수경 전문강사와 충남교통연수원의 이형규 교수를 초청하여 차량 운행 중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대처방법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로 운영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한광희 행정과장은 바른 일정에도 연수에 참여한 운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통학여건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홍성교육지원청 통학차량전수조사에 이어 안전교육까지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통학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포=김정현기자

## 충남도교육청, 행안부 기록관리 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기록관리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기록물 이관, 기록관리 지침 제정, 기록물관리 교육, 학교 사진기록물 전시 등 기록관리

업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법령 기본 사항 및 절차를 준수해 최우수등급 달성의 쾌거를 이뤘다.

평가 기준 기관유형별목 가(100~90), 나(89~80), 다(79~70), 라(69 미만) 4등급 점대평 가로 실시됐으며, 충남도교육청은 충청권 3개 교육청과 함께 최우수등급인

가등급으로 평가됐다.

최환규 총무과장은 "충남도교육청의 체계화된 기록관리과정적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에 기쁘고 함께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산하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더욱 힘써 충남교육 기록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당진교육지원청, 2017안보사진 전시회 개최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은 지난 14일부터 2017 을지연습(21~24일) 기간동안청사내 복도공간을 활용해 안보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지부의 지원을 받은 이번 전시회는 6·25 전쟁 당시 상황과 피난생활 천안함사건, 연평 해전등을 담은 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놀이자원봉사자 연수 수료식 및 놀이터 운영 협의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세종시교육청)이 17일 오전 10시 40분, 본청 4층 대회의실에서 「놀이자원봉사자 연수수료식 및 놀이터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신폴리텍대, 일학습병행제의 선도적 역할 수행

한국폴리텍대학 이신캠퍼스(학장 윤기철) 듀얼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제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16일 듀얼공동훈련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원회에는 천안교수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전경규 팀장 외 9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서면중, 제12회 해외문화체험 프로젝트학습 실시

서천 서면중학교(교장 김진욱)에서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해외문화체험 프로젝트학습 12차 팀이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 동 정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막식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8일 오후 7시 보령머드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교육정보화 연수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18일 오전 10시 30분에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7. 9. 1자 유·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 임명장 수여식', 오후 2시에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7. 9. 1자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오후 4시 30분에 학생인해수련원에서 열리는 '2017 라오스(교류협력국) 교원 초청 교육정보화 연수'에 참석했다.

시·도 집필위원 워크숍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8일 오후 5시 30분 대전 나무호텔에서 열리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시·도 집필위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새마을회 하계수련대회



김석환 홍성군수는 18일 오전 11시 30분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되는 홍성군 새마을회 하계수련대회에 참석했다.

‘역사+생태+안보...’ 수학여행도 충남서

도, 백제역사와 생태·안보·충효·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 위주 팸투어 실시

충남도가 17~18일 전국의 수학여행 전문 여행사 대표 및 상품기획자 19명을 초청, 백제역사와 생태, 안보, 충효, 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 위주의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다시 쓰는 충남 수학여행'을 주제로, 기존 공주·부여 중심의 백제 문화유적 외에 농촌체험, 생태, 안보 등 충남의 다양한 체험거리를 소개해 수학여행을 유치하고자 기획했다.

팸투어 첫날인 17일은 백석읍미마을 체험거리와 시설 소개를 시작으로 낙농체험장인 아그로랜드, 태신목장과 사과따기, 파이 만들기 등 체험이 가능한 은성농원을 방문했다. 이어 세계 5대 기후대의 동·식물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국립생태원을 거쳐 스카이바이크, 동자북마을, 한산모시관 등을 둘러보았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홍삼제조공정을 둘러볼 수 있는 인삼박물관 시설과 백제문화단지를 방문하고 수상레저 체험장인 백마강레저파크, 도자기 체험장 백제요 등을 방문했다. 이후 안보체험을 테마로 논산밀리터리파크와 계룡대 답사를 끝으로 팸투어는 마무리된다.

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팸투어 참여 여행사와의 지속적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구성·홍보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설기호 도 관광마케팅과장은 "이번 팸투어는 재미와 체험 위주의 일정을 선호하는 최근의 수학여행 추세에 맞춰 다양한 체험소 개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충남이 백제역사와 더불어 생태, 안보, 충효, 농촌체험 등 다양한 테마여행이 가능한 수학여행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 올해 3곳 지적재조사 진행

명학·부강·문곡 3개 지구 214필지...내년까지 완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할 곳으로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세종시는 17일 연동면 명학리 일원(47필지, 37,584㎡), 부강면 부강리 일원(75필지, 31,081㎡), 부강면 문곡리 일원(92필지, 55,440㎡)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등으로 진행되며, 내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예산군 올해 첫 벼 베기 실시

극심한 가뭄·집중호우 등이겨내고 일찍낸 값진 수확

올해 극심한 봄 가뭄과 집중호우 등 어려운 기상 여건을 이겨내고 17일 예산군 고덕면 일원에서 충청남도 올해 첫 벼 베기가 실시됐다. 군에 따르면 이날 첫 벼 베기는 고덕면 지곡리 이명식(58세) 씨의 논(면적 4958㎡)에서 실시됐으며 품종은 고품질 극조생종인 '조운벼'이다. 이명식 씨는 지난 4월 25일 모내

기를 시작한 지 114일 만에 결실을 보게 됐으며 수확한 벼는 건조와 도정과정을 거쳐 추석 햅쌀로 판매 예정이다. '조운벼'는 이삭이 빨리 패고 밥맛도 우수한 특성이 있으며 추석 전에 햅쌀로 판매돼 가을 수확보다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벼수확 후 밭이나 보리와 같은 작물을 재배해 경지 활용률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황선봉 군수는 이날 벼 베기 현장에 참석해 극심한 봄 가뭄을 극복하고 최고 품질의 벼를 생산한 농민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직접 콤팩트를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낱알 상태를 살펴보는 등 첫 수확의 기쁨을 농민과 함께 했다. 황선봉 군수는 "예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쌀 산업 육성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해 예산 쌀이 전국 최고의 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세종시 시민 포상금 지급

지방세세입증대 공모... '납세자 권익보호·공정한과세 실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탈부은닉세원 발굴 제보 및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받는 등 세금탈루자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시민에 대해 일 정금액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세금탈루자에 대한 탈부세액 제보 ▲부당 환급신청자에 대한 제보 ▲부당 지방세 감면신청자 제보 ▲명의신탁 납세자에 대한 은닉재산 제보 ▲버려지거나 숨겨진 세원에 대한 제보 ▲장의적 제도 제안으로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이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 기본법 및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세정담당관실 징수담당 또는 각 읍면동 징수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성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그린홈오피스아파트 공모사업공고

충남도는 17일 아파트마을의 공동체 활성화와 친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홈오피스아파트' 공모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특히 올해부터 임대아파트 부문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시범 시행하는 그린홈오피스아파트는 아파트 입주주민간 화합과 공동체 문화조성, 에너지 절약실천,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관리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해당 지역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응모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지평가를 거쳐 분양부문 2개 단지, 임대부문 2개 단지 등 총 4개 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그린홈오피스아파트의 주요 평가 항목은 △관리의 투명성 등 일반관리 △장기수선계획 수립, 안전관리 등 시설 유지관리 △주민자율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현장평가 등 5개 분야다.

그린홈오피스아파트로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와 분양부문 3천만원, 임대부문 1500만 원의 시설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그린홈오피스아파트는 임대아파트 부문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시범시행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이웃과 단절된 주거공간이라는 의식에서 탈피하고 우리가 사는 마을이라는 인식이 높아져 서로 단지 내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홍성군, 하반기 과세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지방세수 증대

홍성군은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보로 지방세정의 신뢰도 제고와 지방세수 증대 및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반기 과세대상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무과, 각 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 ▲과세대장에 누락된 무허가 건물, ▲미신고 증·개축 건물, ▲주유시설의 신규 교체 및 누락분, ▲부과대상 시설물(골프연습장, 체자장, 지하수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건물의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사전 예고하는 한편 사망자의 경우 상속자를 파악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은 과도한 건축물 조사를 지양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사대상의 전산자료 확보 등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7월 부과된 정기본 재산세 징수에 있어 총 부과액 약66억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60억원의 재산세를 징수하여, 홍성군민의 향상된 납부 의식을 확인한바 있다.

홍성=김정환기자

홍성군 군립 합창단 단원 모집

28~30일까지 원서 접수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원서 접수, 단원 선발 시 혜택 있다. 홍성군이 군립합창단의 결원 발생 및 실력 강화를 위해서 합창단 단원을 신규로 모집한다. 모집분야, 인원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8명 내외로 지원 자격은 만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정기연습(매주 화 1900, 홍주문화회관) 참여가 가능한 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응시원서는 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신청 문화관광과로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실기 및 면접은 9월 5일 17시 홍주문화회관에서 자유곡 1곡으로 진행되고 합격자는 9월 8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위촉 기간은 2년이다.

홍성군립 합창단은 2017년 충남도 합창정연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지역문화예술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문화정서 함양에 앞장서고 있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이익을 가져다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현대식 전통 가옥 MODE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대전. 빅 정보. FAX. 042. 624. 1204. HP. 010.7472.4972. pjsin71456@hanmail.net

동정

개소식



김홍장 당진시장 = 18일 오후 2시 당진 공용버스터미널에서 열리는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

배식봉사활동



이종연 당진시의장 = 18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48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 오전 11시 30분 남부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당진시의회 의원 배식봉사활동에 참석.

기본계획 보고회



한상기 태안군수 = 18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해양관광 테마특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보고회에 참석.

한돈협회 단합대회



이석화 청양군수 = 18일 오전 11시 30분 남양면 강변가든에서 열리는 2017년 한돈협회 단합대회에 참석.

'깨끗한 대치면 만들기' 추진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양 만들기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대치면(면장 이용만)은 16개 기관 단체가 주요 도로변 책임 청소구역을 정하고 솔선수범해 깨끗한 대치면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철갑산, 장곡사, 휴양림등 청양군의 관광유원지가 집중된 대치면은 각종 축제와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기에 최적지로 손꼽히는 지역으로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관광객이 줄을 이어 북적이다 보니 청결한 환경 유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면은 기관단체 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도로변 책임 청소구역을 정해 제초작업, 쓰레기 줍기 등을 연중 실시하고, 마을안길은 주민들이 동참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자는 의견을 모았다.

한편 면은 지난 11일 '깨끗한 환경 만들기! 다함께 실천합시다'라는 서한문을 전 세대에 발송해 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과 내 집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 하라고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온양동행복마을정기월례회의가져

아산시 온양3동 행복마을추진단(단장 홍인순)이 지난 16일, 주민중심 동네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마을 월례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했던 저소득층 가정 학생 여름방학 캠프인 '2017년 행복UP! 사랑UP! 여름방학캠프' 운영 결과 보고 및 행복마을추진단 워크숍 세부일정에 대한 논의와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대상 선정 및 전달방법에 대해 의결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형 청년정책 전국이 주목한다

설자리·일자리·살 자리·놀 자리 맞춤형 청년사업 선도

청년실업과 저출산 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문제 해소를 위해 당진시가 추진 중인 '당진형 청년정책'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1월 청년정책팀을 신설한 이후 '내일이 설레는 청년 당진'을 비전으로 설자리와 일자리, 살 자리, 놀 자리라는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해 31개에 이르는 청년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다.

청년 인프라 조성과 청년과의 소통 강화를 목표로 한 설자리 분야에서는 이미 올해 상반기 청년정책추진단과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돌입한 것은 물론 청년정책의 근간인 당진시 청년기본조례 제정도 마무리했으며, 전국 최대 규모(1,485㎡)의 청년센터도 설치에도 나서서 등 10개 사업



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일자리 분야에서는 맞춤형 청년인턴제를 도입하고 청년취업 사관학

교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사회적 경제 창업 특례자금 조성에도 나서서 등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질병 없고 '쾌적한 태안' 만들기 온힘

'원스톱 방역 민원 소독 사업' 추진 등 군민 건강 증진에 앞장



태안군이 하절기 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사업 및 예방교육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은 여름철을 맞아 5월부터 오는 9월까지 총 3,500개의 모기 방충망을 설치하고 모기 유충 서식지를 조사해 922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모기를 매개체로 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인구밀집지역과 해수욕장, 항·포구, 축사 등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페타이어와 물통 등 인공용기에 대한 정비와 손 씻기, 음식물 익혀먹기와 같은 개인위생수칙을 홍보하

는 등 감염병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방역 시 연막소독에 비해 약품 잔류율이 높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초미립자 연무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초부터 군 특색사업인 '원스톱 방역 민원 소독 사업'을 추진해 지난달 말까지 총 101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군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힘쓰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모기의 활동기간인 오는 10월까지 방역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는 등 모기로 인한 감염성 질병 억제에 총력을 기울여 '질병 없는 태안군'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군 관계자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아산고불맹사성기념관 월요일 휴관일도 임시 개방 중



전시관, 영상관, 방문자센터 및 사무실, 수장고, 교육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불맹 사성선생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일대기와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 맹씨행단 이야기 등 새로운 역사 사실을 접할 수 있다.

월요일에 기념관을 찾아와 둘러본 한 관람객은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역사 유적지를 둘러보고 있는데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기념관을 열어 맹씨행단과 함께 전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불맹사성기념관 김호일 학예사는 "서울 소재 국립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은 2017년 월요일 휴관을 해제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불맹사성기념관은 6개월 동안 임시

로 월요일에 개방해 추후 관람객 수의 분석 및 운영과정 검토를 통해 월요일 휴관 및 개관을 판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불맹사성기념관 시설 가운데 교육관을 초·중·고등학교 지역 역사동아리와 대학생들에게 고불맹사성선생의 정령정신 및 역사에 대한 토론 및 세미나를 등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다. 사용예약은 유선(041-541-5330)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17. 9월부터는 2015년부터 진행한 '생생문화재-맹씨행단'이 들려주는 조선시대 맹씨이야기' 프로그램이 유아·초등학교·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집중육성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노인복지 수준 획기적으로 UP

태안군, 경로당 개·보수·일자리 확대 등 노후생활지원 앞장

태안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군 전체 인구의 27%를 넘어선 가운데, 태안군이 체계적인 노후생활 지원 등을 통해 '행복한 군민' 시대 개막에 앞장선다.

군은 1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주민복지와 정례브리핑을 갖고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경로당 환경조성, 효 문화 확산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태안을 남문지구에 연면적 3,667㎡(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오는 11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주거와 여가활동 시설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노인공동생활시설을 확대 운영키로 하고 오는 10월 중 노인시설 2개소를 신축, 기존 8개 시설을 더한 총 10개소의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해 안전한 노후를 위한 방안 마련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노년층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단위 경로당 환경조성 및 공동생활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군은 지난 상반기 2억 2500만 원을 들여 33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49개소에는 8천만 원을 투입해 에어콘 등 생활·건강관리 물품을 지원했다.

아울러, 주거와 여가활동 시설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노인공동생활시설을 확대 운영키로 하고 오는 10월 중 노인시설 2개소를 신축, 기존 8개 시설을 더한 총 10개소의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해 안전한 노후를 위한 방안 마련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은 전 군민에 대한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효

행장려금 제도를 도입, 작년 10월 총 2억 2800만 원을 761명에 지급했다.

올해도 내달부터 대상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며,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대기자 221명 전원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자 주민복지과장은 "풍족한 미래세대를 위해 희생한 노인층의 행복을 우선 책임지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오는 9월 1일 태안읍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태안군 행복 나눔 복지박람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우리/동/네

당진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확대

2019년까지 8억 원 투입, 총 89km구간 대상

당진시가 17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설치된 상·하수도물 전산화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당진시는 2019년까지 이 사업에 총 8억 원을 투입해 당진시 송악읍과 면천면, 신평면 일원 도로 35.5km와 상수도 34km, 하수도 16.5km 등 총 89km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기반 시설물의 매설 위치를 조사한 뒤 지하시설물 정보(GIS)에 대한 DB를 구축한다.

구축된 DB는 당진시 공간정보시스템에도 탑재해 도로정용이나 도로굴착 사업 시 활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관련 정책의 시정정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행주 당진시 토지관리과장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면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 도로굴착 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사고 등을 미리 막을 수 있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동지역과 합덕·송악읍 일원을 대상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사업을 실시해 총 835km(도로 251km, 상수도 286km, 하수도 298km)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울지연습민·관·군·경 협력 다짐



청양군 군수 이석화이 오는 21일 부터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되는 2017 울지연습을 앞두고 민·관·군·경이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실무자 등 30명이 참

석한 가운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개최하고, 안보동영상 시청 및 2017 울지연습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 간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울지연습 준비 상황을 점검, 공유하고 분야별로 유관기관 간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위협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올해 울지연습은 전쟁 이전의 국지도발과 국가 위기 등에 대한 관리연습 및 전쟁 발발 이후의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장 이석화 군수는 "어느 때보다도 통합방위대태 확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각 기관에서는 현 안보정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 신정호 별빛축제 '성료'

올해 성년을 맞은 제20회 한여름 밤의 신정호 별빛축제가 작년 대비 1,700여명이 늘어난 9,200여명이 찾은 연일 성황 속에 명실상부 아산시 대표 여름축제임을 확인하며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아산시가 주최하고 (재)아산문화재단 주관, 삼성디스플레이와 ㈜맥키스컴퍼니가 협찬한 이번 축제는 지난달 2일부터 12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신정호 야외음악당 및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가족과 친구, 연인 등 누구와 함께 즐겨도 좋을 만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잠 못 이루는 열대야속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행시장을 찾은 한 시민은 "올해도 한여름더위를 신정호 별빛축제로 이겨냈다"며, "내년에도 신정호 별빛축제가 아름다운 신정호수공원에서 무더운 밤하늘 아래 잊지 못할 추억과 낭만을 선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정호 별빛축제가 이제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아산시민들과 함께 더남다른 축제로 만들고 가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600시간으로 확대

## 천안시, 정부지원으로 시간제 아이돌봄 120시간 추가

천안시가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이은정)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돌보미를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영아종일제 돌봄과 시간제 돌봄으로 나뉘는데 이 중 부

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동에게 식사, 보육시설 등·하고 평가기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월 20일 이용 시 1일 평균 2시간만 이용이 가능해 휴일이나 야간에도 입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은 서비스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영아종일제 돌봄과 시간제 돌봄으로 나뉘는데 이 중 부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 (070-7733-8300)에 서비스를 연계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는 지원유형 결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서비스 신청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고 문의사항은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

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간 확대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7월말 기준으로 천안시에는 23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며, 이들이 각 가정으로 파견돼 2만302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천안=구본영



## 최신 무인항공기(드론) 본격 운영

### 계룡시,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분야 활용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최신 무인항공측량시스템(드론)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16일 오후 시청 현관 앞에서 최홍묵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도입한 무인항공측량시스템(드론)에 대한 시연회를 가졌다.

시가 이번 도입한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은 회전이 드론 2대, 워크스테이션 1대, 후처리 프로그램 등으로 4,200만 원의 고해상도 카메라 탑재로 고정밀 무인항공 촬영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해 지적재조사사업, 도시개발지역 확정측량 등 고해상도 항공영상이 필요한 토지행정 업무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항공사진 측량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관내 재난·재해 시 피해현황 파악, 토지보상 업무, 산림병충해 조사, 시정홍보를 위한 영상촬영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같은 날 오전 논산경찰서 서장실에서 논산경찰서(서장 신주현)와 무인항공기(드론)활용 MOU를 체결했다.

이번 무인항공기(드론)활용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드론을 활용해 수색이 어려운 산악지역 등에서 실종자 발생 시 조기 발견체계 구축과 구조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치매노인 실종 시 인력을 이용한 수색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무인항공기(드론)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사회와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홍묵 시장은 “무인항공기를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하여 시간 및 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고품질 행정서비스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선진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여군 어르신들 함께 웃음 한바탕

### 시설관리공단, 노·사 공동 행복공감 위문공연 실시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태는 지난 16일 홍산면 장수요양원에서 공단 소속 한울봉사단원 10여명이 방문하여 노·사 공동 행복공감 위문공연을 실시했다.

이번 노·사 공동 행복공감위문공연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전달 및 직원들의 재능 기부활동으로 해금연주와 공단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을 펼쳤으며,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과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양태 이사장은 “공단은 소통과 나눔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단으로 거듭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여군시설관리공단 한울봉사단은 2014년부터 4년째 운영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자재 모금활동으로 마련한 후원물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농번기 일손돕기, 기술지원반을 운영하여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부여=이정복기자

## ‘2017계룡軍문화축제’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 포터즈 23명 위촉·다양한 축제 소식 전달 역할 수행



계룡군문화발전재단이사장 최홍묵이 홍보 서포터즈를 통해

‘2017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의 다양한 소식에 대한 본

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재단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홍묵 시장과 관계 공무원, 축제 홍보 서포터즈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SNS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홍보 서포터즈는 계룡대를 방문하여 6.25전쟁에 참여해 순직한 호국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명예의 전당, 계룡대 상징동일탑, 조선시대 궁궐 주조석 견학 등 안보현장을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홍보 서포터즈는 SNS를 활발히 운영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의 10대에서 5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과 학생,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분

## 우범지역·재난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 서천군, 밤길안전 위한 보안등 신설·노후 보안등 일제 교체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우범지역 및 재난 취약지역에 보안등 신설과 노후화된 보안등 교체에 나선다.

군은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범지역 및 재난 취약지역에 신규 보안등 52개를 설치하고 아울러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전기적 위험요소가 예상되는 노후보안등 52개를 교체한다.

8월말까지 사업대상지를 현지 조사해 신설 및 교체 보안등을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발주를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병직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우범지역, 재난취약지역, 야간통행 불편지역 등 보안등이 새로 필요한 곳과 오래되고 낡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한 보안등을 우선 설치 및 교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천군에는 10,942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돼 있으며, 신규보안등 설치 및 노후보안등 교체를 필요로 하는 곳은 오



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대한민국 귀농귀촌 메카 논산-시흥시 귀농활성화 협약 체결

### 귀농 희망자 발굴·연계, 조기 정착지원 등 상호협력

논산시(시장 황명선)와 시흥시(시장 김윤식)가 17일 논산시청 상황실에서 ‘귀농귀촌 활성화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도시민의 꿈을 응원하고 농촌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간 연대를 통해 실천 가능한 상생모임 발굴을 위함이다.

▲귀농·귀촌 희망자 발굴 및 연계 ▲귀농·귀촌 희망자의 조기정착 지원 ▲농산물 직거래 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간 동농연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양 도시는 교육, 영농정보제공, 인적교류 등 제반 협력과 인프라를 상호 지속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도

귀농·귀촌인의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 3월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 2015년 귀농귀촌지원종합 센터를 일원화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찾아오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유치, 정착지원, 재배기술 지원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6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귀농통계조사에서 충남지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논산=이길구기자

## (재)충남영석장학회 장학금 1억6천여만원 수여

### 현재까지 537명에게 6억1000여만원 장학금 지원

(재)충남영석장학회이사장 김태용은 지난 17일 부여군보건소에서 2017년도 충남영석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태용 이사장과 이용우 부여군수, 장학회 임원, 장학생,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용 이사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숨은 인재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2012년 12월에 충남영석장학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537명에게 6억1,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의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7월 21일까지 장학생을 추천받아 총 118명(고등학교 41명, 대학생 77명)을 선발해 1억6500여만원을 전달했다.

김태용 이사장은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여러분을 만나 더 없이 기쁘고 이번 계기로 여러분의 꿈이 굳건해지고 원대한지길 기원하며 (재)충남영석장학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미래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지역과 국가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성장해 주길 바라며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해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

부여=이정복기자

## 동정

### 행복콘서트



황명선 논산시장= 18일 오후 4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되는 찾아가는 동고동락 행복콘서트에 참석, 오후 6시

20분 논산시민공원에서 개최되는 제 12회 논산시 청소년 문화제 개막식에 참석,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세 번째행복프로젝트 「주현미와 만나는 러브레터」에 참석.

### 시상식



최홍묵 계룡시장= 18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도민체전 사진촬영대회 시상식 참석.

### 스포츠제전



노박래 서천군수= 18일 오전 8시 3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제30회 서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하며 11시 상황

실에서 열리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심의회에 참석하고 오후 6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에 참석.

## 서천군 학교급식 식중독예방 지도·점검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가을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식중독 사고예방과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비롯해 학교매점, 학교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은 신학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및 식중독 예방 교육 ▲지하수 사용 용수로 사용하는 업소는 식중독 예방요령 홍보 ▲고열량, 저영양 식품판매 여부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무신고 영업,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 등 점검 ▲지하수 사용 감지 등 비가열 섭취식품 제조업체는 식품용수 집중 점검 등이

다. 특히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조리기구, 작업대, 냉장고 등) 및 정수기에는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높을만큼 급식 시작 전에 청소, 소독 및 식재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급식초기 대형 식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성수 민원실장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주의를 요구하나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식재료 안전관리, 조리된 음식의 보관 관리,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식중독예방 3대 수칙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천=김태성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특정

금요간부회의 주제



오시덕 공주시장= 18일 오전 8시 30분 상황실에서 금요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한·일 건축재료·시공 심포지엄 참석자 방대환영식에 참석.

통합방위회의



김동일 보령시장= 18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통합방위회의, 오후 7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식 참석.

2016년 후기 학위수여식



이완섭 서산시장은 18일 오전 10시 노인아카데미 강의실에서 열리는 2017 노인재능나눔사업 평가회에 참석, 오전 11시 한서대학교에서 열리는 2016년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

통합방위회의



조민행 보령교육장= 18일 오전 11시부터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17 을지연습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4시부터 충남학생인권추진위원회에서 개최되는 라오스 초청 교원 정보화연수 개강식에 참석.

보령 성주심원동 가족단위 피서객 인기

보령에서 물이 맑고 깨끗하며 차갑기로 소문난 성주 심원동과 먹방 계곡이 휴가철 막바지인 8월 중순까지 연일 피서객의 방문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가족단위 피서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성주 삼거리에서 심원계곡로를 따라 2.7km에 걸쳐 생성된 자연발생 원천지인 심원동 계곡은 예로부터 깊은 골짜기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심원(深遠)'이라 이름 붙여졌으며, 맑고 깨끗하며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어 가족단위 피서지로는 제격이다. 매년 여름 휴가철 3~4만여 명 이상 방문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성수기가 지난 8월 중순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5만여 명 이상이 방문하며 대성황을 누렸다.

심원동에 비해 물이 부족했던 먹방 계곡 또한 7월초부터 장마의 영향을 받아 시원한 계곡수가 흐르면서 한적하고 깨끗한 장소를 선호하는 관광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심원동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달·오리 백수아니 파전 등 음식을 파는 식당이 30여개소가 성업 중에 있으며,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펜션이나 민박집이 많이 있어 멋진 여름 추억을 만들기엔 안성맞춤이다.

또 인근에는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하는 편백나무 숲으로 유명한 성주산 자연휴양림, 과거 70~80년대 탄광촌을 그대로 옮겨 놓은 석탄박물관, 다양한 석조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성주 개화예술공원과 웅천 돌문화공원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평상 대어의 경우 비수기에는 2~3만 원, 성수기에는 4~5만 원을 받고 있어 저렴한 비용으로 시원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는 제격이다.

이재국 성주면장은 "올해는 가을의 영향으로 해와 바다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 관광객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며,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한 시민과 관광객께서는 산림과 계곡들이 풍부한 심원동·먹방 계곡으로 꼭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기자

금산군 여성친화도시 가시화 박차

거버넌스 구축·인재육성·주민교육 등 조기실현 총력... 경력단절 여성 사회경제 활동 참여확대

금산군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시화를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양성평등 조례제정, 민관 거버넌스 구축, 주민교육, 인재육성, 소모임 활성화 등 실질적인 여성 사회 참여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군은 지난 3월 '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으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을 맡겼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주민참여단을 조직해 워크숍, 도농교류사업(대전 서구 벼룩시장), 커뮤니티(카페, 밴드) 등 수평적 공공 협력구조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추진동력을 얻어냈다.

또한 여성청의문화센터 운영(사회교육, 배달강좌), 여성지치대학 운영, 여성취업 및 구인 구직 지원(66명), 여성인재 등록 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확대에



공을 들였다. 여성지치대학,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워크숍, 여성소모임 간담회, 청년물 예비창업자 교육 등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내실을 닦았다. 7월 현재 270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여성문화제 개최, 유관순상 시상식 참여 및 인심엑스포 홍보활동

등 여성리더의 역량강화 및 역할 제고에 앞장섰다. 양성평등 교육은 강의, 포럼연극,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지역특성화 사업선정, 여성친화도시 신청, 직업훈련 및 취업교육 등 양성평등 조기실현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진다. 군 관계자는 "모두가 행복한 금

산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 마을 등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 소통의 길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금산=전정만 기자

호흡기질환관리 프로그램 호응



서산시 드림스타트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방 호흡기질환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폐(肺) 기능 향상과 비강점막의 상태를 개선하는 한방치료를 통해 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감기, 비염, 축농증 등의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지역 한의원과 협약을 맺고 이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의사가 직접 호흡기 관련 경혈에 침 치료와 철약 복용을 병행하는 등 아동의 체질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명근 서산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아동의 건강 관련 예방교육도 함께 추진해 의료 취약아동의 면역력 향상과 체력증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서산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앞장

도시안전통합센터 중심 시민 체감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서산시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중심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문 교육을 받은 관제 요원과 경찰관이 817대의 CCTV를 24시간 지켜보며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의 감시는 물론 어린이 보호와 주정차 단속에도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발생한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512건의 해결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시는 39개소에 저화질로

설치된 71대의 방범 CCTV를 9,800만원을 들여 정확한 식별을 가능케 하는 고화질로 교체했다.

또 7억 2,500만원을 들여 취약지역의 야간보안 강화에 나선다. 132개의 CCTV를 오는 10월까지 경찰서 협의해 설치할 계획이다.

이 CCTV들은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연계해 범죄 예방은 물론 위험 시설물 관리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된다.

시는 증가하는 농산물 절도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을안길, 마을회관 인근에도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억원을 투입해 노후한 비상벨시스템 177대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진

행 중이다. 비상벨이란 방범 CCTV에 설치된 통화장치로, 비상벨을 누르면 송수신기를 통해 즉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관제요원과 통화가 가능하다.

이번에 설치되는 비상벨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보완한 디지털 사물인터넷 방식으로, 음성 외에 영상과 위치정보를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전송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주 서산시 공보전산담당관은 "앞으로도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CCTV를 확충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and website www.daejeontoday.com.

보령시, 보령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20일 개최

스트레스 자유와 짜릿함으로 해소

보령시는 오는 20일 옥마산 활공장에서 제24회 보령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를 개최한다.

보령시와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에 주최하고 보령시 패러글라이딩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20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연계 행사로 진행되며, 국내·외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및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여한다.

개회식은 오전 11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고, 옥마산 활공장으로 이동해 낮 12시부터 연습조종사부, 조종사부, 단체부, 선수부대표선

발) 등 4개 부문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참가자격은 패러글라이딩협회 회원으로서 참가 부문별 자격소지자로, 행사 당일인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회가 열리는 옥마산 활공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령의 옥마산 옥마봉(620m)에 위치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은 내륙지역과 달리 서해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이륙하기 적당한 경사면을 갖추고 장애물도 없어 마니아들에게 전국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고 있다. 패러글라이딩 비행체험은 1인당



7~8만 원이면 이용이 가능하고, 전문가와 함께 하는 쌍승 비행으로 일반·곡예·특별비행 등 체험자의 연령과 신체 상태에 따라 다양한 비행을 해볼 수 있는 등 하늘을 나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한편, 참가문의는 보령시패러글라이딩연합회 (http://cafe.daum.net/jnh03035)나 전화(정대팔 회장 010-5433-7545)로 하면 된다.

보령=김태성기자

우리/동네

공주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9월부터 총 9개 강좌 운영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관내 작은도서관 6개소에 다양한 맞춤형 독서문화강좌를 준비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옥룡동 작은도서관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책이 좋아! 재미 좋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 종이랑 놀자'를 운영하며, 새뜰책방 작은도서관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붓펜 캘리그래피'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입하기 좋은 날'을 운영하며, 금학동 작은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계 지리 탐구 북아트'와 유아를 위한 '손으로 표현하는 이야기 상상여행'을 진행한다.

또, 계룡책방기 작은도서관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야기 특! 그림책'을, 반포면 작은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코칭 보드게임'을 운영하며, 정안밭골이 작은도서관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책·보링' 강좌를 운영한다.

특히, 금학동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세계 지리 탐구 북아트'는 세계의 지리, 사회, 문화를 넘나드는 통합적 사고과정을 다양한 북아트 활동과 연계 진행해 어린이들에게 사회과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좌는 18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gongjilib.go.kr)를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 응진관(041-840-22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명규 시립도서관장은 "작은도서관에서의 작지만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독서문화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성범 기자

금산군 산란계 농장 식용란 '안전'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살충제 검사결과 '적합' 판정

지난 15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 금산군 내 산란계 농장 3곳의 식용란은 살충제 성분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는 금산군 관내 산란계 농장 3곳으로부터 수거(15일)한 식용란을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16일 판정했다.

이로써 관내 식용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물론 출하 중지도 해제돼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피프트로닐 기준치는 계란의 경우 0.02mg/kg, 닭 이(외구모) 구체에 사용되는 다른 살충제인 인펜트린 기준치는 0.01ppm으로 허용돼 있다.

금산군은 산란계농가 식용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양계농가, 양계협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인체에 피해가 되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전 농가에 대한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산란계 농장에서는 각종 약품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전정만 기자

Advertisement for '직장 힐링교육 운영 호응' (Office Healing Education Response) in Gongju, featuring a stress management program.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August 18th, including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August 19th, including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August 20th, including news,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s.

TV 하이라이트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2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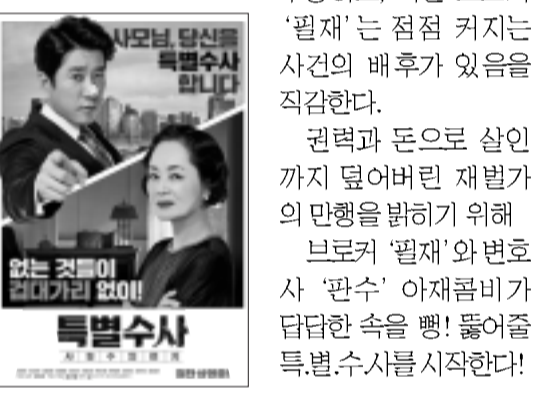


선호는 이란을 쫓아 요양원에 갇지만 달님엄마를 찾지 못하고 이란과 맞서기만 한다. 간신히 달님엄마를 빼돌린 유경은 당분간 그녀를 자신의 집에 두기로 하지만 언제 들킬지 불안하고, 달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엄마를 찾는다. 한편, 재욱은 이란의 책상을 뒤지다가 유경의 수술기록을 발견하고 수술날이 달님엄마가 다급하게 메시지를 남긴 날과 일치한다는 것을 달님과 선호에게 알리는데...

케이블 영화

특별수사 (19일 OCN 오후 4시0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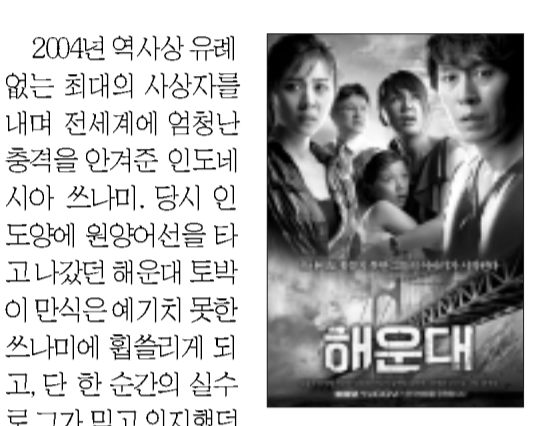
"팬스까지 썩 버져줄게" 갑질하는 금수저에게 날리는 통쾌한 반항! 한때는 모범 경찰, 지금은 잘 나가는 브로커 '필재'(김명민). 끊이지 않는 사건 수임으로 '신이 내린 브로커'로 불리는 그와 브로커 모시며 일하는 변호사 '판수'(성동일)에게 어느 날, 사행수로부터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대해제철 머느리 죽인 놈이네. 이런 사건은 근처에도 가면 안돼" 시간을 뒤늦든 인천의 재벌 '대해제철 머느리 살인사건'의 범인 '순태'(김상호)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사건 브로커 '필재'는 점점 커지는 사건의 배후가 있음을 직감한다. 권력과 돈으로 살인까지 덮어버린 재벌가의 만행을 밝히기 위해 브로커 '필재'와 변호사 '판수' 아재콤비가 답답한 속을 뽐! 뿔어줄 특별수사를 시작한다!



아버지가이상해 (19일, KBS2 오후 7시55분)

재판장에서 임종화를 본 윤석은 혜영이 재심을 준비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혜영의 눈물 어린 설문에 임종화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영실은 가족들에게 수술 사실을 숨긴 채 유주의 도움을 받아 입원하는데...

해운대 (20일 채널CGV 오후 10시00분)



2004년 역사상 유례 없는 최대의 사상자를 내며 전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인도네시아 쓰나미. 당시 인도양에 원양어선을 타고 나갔던 해운대 토박이 만식은 예기치 못한 쓰나미에 휩쓸리게 되고 단 한 순간의 실수로 로고가 밟고 의지했던 연희 아버지를 잃고 만다. 이 사고 때문에 그는 연희를 좋아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밖에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만식은 오랫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연희를 위해 멋진 프로포즈를 준비한다. 한편 국제해양연구소의 지질학자 김휘 박사는 대마도와 해운대를 둘러싼 동해의 상황이 5년전 발생한 인도네시아 쓰나미와 흡사하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대한민국도 쓰나미에 안전하지 않다고 수차례 강조하지만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난 방재청은 지질학적 통계적으로 쓰나미가 한반도를 덮칠 확률은 없다고 단언하는데...

대전시티즌 흥경기 '에너지의 날' 기념 풍성한 이벤트

에너지공단 대전총남, 오는 20일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 역본부(본부장 이재훈)는 오는 20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시티즌 흥경기에서 '에너지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오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정보 제공, 에너지 체험 및 이벤트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다. 경기 시작 전 5시부터 경기장 입구에서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자기발전 자전거, 에어풍선, 태울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정보 제공, 에너지 체험 및 이벤트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다. 경기 시작 전 5시부터 경기장 입구에서는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자기발전 자전거, 에어풍선, 태

도내 합기도 유망주들 청양서 자웅 겨뤄

제9회 충청남도 교육감기 학생 합기도대회 열려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가운데 개최된다. 충청합기도 중앙협회(회장 김영덕)와 청양군합기도협회(회장 이흥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대련경기 개인전(남자부 45체급, 여자부 30체급) ▲호신형 경기 개인전(남·여 20종목) ▲기록경기 개인전(남·여 20종목)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개인을 비롯해 메달별 점수에 의거 학교별, 체육관별 이뤄진다. 한편 청양군은 올해 ▲제18회 중앙협회장기 전국생활체육 합기도 대회(4월) ▲제18회 충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 대회(4월) ▲제17회 국무총리기 전국생활체육 합기도대회(6월)를 유치했으며, 오는 11월에는 2017 전통스포츠 전국 합기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석화 군수는 "합기도는 청양 스포츠마케팅의 주력 종목"이라며 "선수단의 불철저고 대회 진행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태안군 씨름단 시도대항대회 2체급 정상에 '우뚱'

용장급 1위를 비롯해 개인전에서 무려 6명이 입상하고 단체전에서도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태안군청 소속 최성국 선수가 경장급에서 1위를, 황재원 선수가 용장급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최장급 최영원 선수와 용사급 전선현 선수, 역사급 우동진 선수가 2위를, 소장급 윤홍식 선수가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태안=김정환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학교급식 조리원 위생·안전교육 참석**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은 17일 오후 2시, 대전평생학습관에서 동부지역 학교급식 조리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안전교육에 참석했다.



**김지철 교육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 격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6일 오후 천안공고(학교장 허은)를 방문해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해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밭대 IT융합인력양성사업단 교수법 워크숍 개최**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IT융합인력양성사업단 주관으로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경기도 가평군 이뜨랜드 리조트에서 정보기술대학 교수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수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안동영·남성기 교수 퇴임식**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학장 이인호)는 16일 세미나실에서 안동영·남성기 교수의 퇴임식과 2017년도 하반기 이석대천(利涉大川) 대학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양읍 이영우씨, 매년 어려운 이웃 위해 쌀 기부**  
청양읍 청양읍 명예환경감시단 이영우(74) 단장이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쌀을 기탁했다. 이영우 단장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 더위에 지치고 힘들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난 16일 청양읍사무소를 찾아 쌀 150kg을 기부했다.



**충청우정청, 2017 을지연습 실시**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동형)은 17일 직원을 대상으로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하고 을지연습 핵심과제와 사대별 조치사항을 사전에 점검했으며 연습기간 동안 충청지방우정청 및 대전, 세종, 충남·북지역 35개 우체국이 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동아리 하계방학기간 전국 각지에서 의료봉사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는 한의과대학장 손창규 교수) 소속 의료봉사동아리가 하계방학기간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다양한 의료봉사동아리들이 활동 중인 한의과대학은 매년 전국 각지를 돌며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등 대학의 위상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의 첫 시작은 한의과대학과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CMF 기독교 의료봉사 동아리이다.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봉사활동은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위치한 쌍학1리 마을회관에서 실시했으며 침 시술을 비롯해 부항과 뜸, 약재 처방 등에 대한 무료 진료가 진행됐다.

이들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



촌지역의 환경을 위해 안내와 예진, 본진 및 약국 등 학년별 역할 분담을 통한 의료봉사를 진행했으며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진료료 위해 찾은 환자들에게 큰 편안함을 안겨줬다.

이어 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의침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충남 금산군 부리면에 위치한 부리농협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고있기도 하다.

또 다른 의료봉사동아리인 보륜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충남 청양군 정산면의 해남보건진료소를 찾아 마사지를 비롯해 침과 뜸 부항 등의 한 방 무료진료를 진행했다. 지역주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는 총 25명으로 구성된 한의과대학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환자들의 특성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진료로 진행되는 등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의료봉사동아리 한길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삼남제약을 방문해 다문 화가정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뜸과 부항 등의 한약 처방과 함께 심전도 및 소변 혈액검사도 실시하는 등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 ● 동정 ● 홍성군 하계수련대회



임 등 규  
충 청 남  
도 새 마  
을 회 장  
= 18일  
오전 11  
시 30분 홍주문화체육센터  
에서 열리는 홍성군 하계수  
련대회에 참석 격려.

### 세종시 류순현 신임

### 행정부시장 취임



류 순 현  
(54) 세종특  
별 자 치 시  
(시장 이춘  
희) 신임 행  
정 부 시 장  
이 17일 세

종시청 여민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류 신임 부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중추 역할을 하는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 부시장은 경남 함천 출신으로 제31회 행정고시(1987년)로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처며 정책역량과 현장 감각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세종=김정화기자

## 당진 해나루쌀! 동해 건너 울릉군 찾다

당진수협 소속 한국여성어업인 연합회, 사랑의 나눔 쌀전달



당진 해나루쌀이 동해를 건너 울릉군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았다.

한편 당진수협은 매년 울릉군과의 교류를 통해 당진시와 해나루쌀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문대 특성화사업단, 대학 특성화사업 3차년도 연차평가

## 교육부 평가 '충청권 1위 달성'



신문대학교(총장 황선조)가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사업 3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충청권 1위를 달성했다.

신문대가 최근 시행된 교육부 대학 특성화사업 연차평가에서 대학 부문 충청권 1위를 비롯해 참여 사업단 5개 중 다문화·상당복지 현장실무인재 양성사업단(단장 이성수·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이하 다문화 사업단)이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09개 대학 323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3차년도 특성화 사업에 대한 실적(80%)과 4~5차년도 계획(20%)을 평가 후 대학과 사업단의 점수를 합산해 순



홍성경찰서, 홍성농협 방문

## 보이스피싱 막은 농협 직원에 감사장 전달

맹훈재 홍성경찰서장이 16일 홍성농협을 방문,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에서 기지를 발휘해 피해를 막은 홍성농협 오픈지점 창구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경 홍성농협 오픈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던 중, '검찰청 금융사기 1수 사립'을 사칭한 보이스피 사기범에게 속아 이체한 돈을 1억원으로 늘려

답는 B씨를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감, 경찰에 신고 했다.

맹훈재 경찰서장은 "홍성에서 단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올 7월까지 35명이 총 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정해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끊고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늦지 않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홍성=김정화기자

## '명불허전'의 역사인물

### 『허임』 출판기념회



조선의 국가대표 짐승 명에 관한 역사발굴 취재기 『허임-조선의 짐구사』 출판기념회를 오는 8월 18일 오후 5시 30분 충남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입구 허임의 짐구정협방 집필지 기념비 앞에서 갖는다.

『허임-조선의 짐구사』는 12일부터 시작한 tvN 드라마 '명불허전'의 주인공 허임(김남길 분)에 대한 역사적 실존인물에 대해 생애와 사건 등을 생생한 자료로 엮어가는 '다큐멘터리 명불허전'이다.

## 인사

### 한남대학교

- ◇팀장 ▲교수학습센터 오연철
- 겸직 기초 - 인성교육센터 팀장
- ▲전략기획팀 한성민(겸직 예산팀장)
- ▲서비스팀 신형근 ▲교무연구팀 이지현 ▲국책사업기획팀 장병호(겸직 국책사업운영팀장)
- ▲LINC+ 행정팀 김원배 ▲총무인사팀 이주섭(겸직 법인수익사업팀장)
- ▲구매관리팀 이병호 ▲평생교육원 임정숙 ▲선교훈련팀 박현홍 ▲시설관리팀 문승인

##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황표농원 찾아

## 농촌마을 일손돕기 및 안전점검 실시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고재철)는 17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 연서면에 위치한 황표농원에서 일손돕기 및 시설개선 활동을 펼쳤다.

일손돕기는 농원의 주 재배작물인 복숭아 수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매한 복숭아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해 사회공헌에 취지를 더했다.

또한 농가의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개선을 통해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고재철 본부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용과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송병배기자

특별 기고

청양의병을 창의학 정인희(鄭寅羲)청양현감



정학진
청양을 사랑하는 마음연구소

한과 이설이 상소를 올렸으나 뜻이 이루지 못하고 서울 경무청에 유치되었다가 한달만에 풀려나자 정인희 청양군수는 1895년 11월 29일에는 청양의 채광목(1850-1906)을 대동하고 의병 180명을 직접 이끌고 홍주성으로 간 장본인이기도 했다.

이처럼 정인희 청양군수는 지역의 유생들과 함께 민족의 혼을 일깨우는 군수로 항일운동에 적극 나선 분이다.

2. 청양의병을 창의학 정인희 청양군수, 홍주의병의 중심에 서다.

청양의병창의소를 설치한 후 1895년 11월 29일 의병의 선봉이 되어 홍주에 도착한 정인희 청양군수는 청양의 안병찬, 채광목, 이세영, 예산의 박창로 등 여러 유생들과 거의 활 것을 논의하고 1895년 12월 1일 청양의 의병이 을미의병인 홍주의병을 주도하게 된다.

특히 이남지역에는 청양의병 수백명을 나그네와 장사꾼으로 변장시켜 홍주성으로 잠입하는데 성공하였고 12월 2일에는 정인희 청양군수의 명을 받은 청양의 이창서(1841~1911)는 의병 수백명을 인솔하고 의병을 반대하는

홍주부 참서관 함인학과 경무사 강호선을 체포하여 이들의 목을 벨 것을 명명하자 의병들은 경무청을 부수고 들어가 이들을 등문 밖으로 끌어내 구타하자 의병에 동참할 수 없었다던 관찰사 이승우는 결국 동참하기로 승복하였다.

3. 정인희는 군수 직을 내려 놓은 의병장이었다.

1895. 12. 3일 홍주에 김복환을

의병 총수로 하는 창의소를 설치하고 이승우를 홍주목사 겸 창의대장으로 임명토록 하였으나 창의소 설치 하루 만에 이승우가 변심하자 그해 12월 4일 각군의 관군은 모두 회군하였으나, 오직 정인희 청양군수만이 공주를 공격하려고 진격 중 정산전투에서 패했다.

정인희 청양군수는 당시 현직 군수로서 항일정신이 충만하였으며 군수 직을 내려놓을 각오로 창의하여 의병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895년 12월 2일 홍주목사 이승우를 승복시키고 정산전투에서 패한 정인희 청양군수는 결국 그 직에서 파직(사임)되고 말았다.

이처럼 1895년 거의 된 홍주의병은 청양의병이 주도하였다.

다시 말해 청양은 홍주의병의 본향인 것이다.

4. 정인희 항일정신이 녹아있는 청양의병

청양의 항일운동의 본거지였던 것은 청양은 충남의 서남부를 관할하던 금정찰방이 있어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으로 요충지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시 정인희 청양군수가 의병창의소를 설치하고 선봉에 서서 많은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청양의 의병장 민중식이 어려서 정산에서 살았던 만큼 청양이 영근지이며 34세에 이조참판의 벼슬을 내려놓고 1895년 정산으로 낙향한 것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면담 최익현과 윤조 민중식이 항일운동 거점지로 청양을 택한 것도 안병찬, 채광목, 이세영, 김덕

진, 등 지역유생들의 항일정신이 의병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양은 예로부터 나라가 어려울 때 구국열념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의에 나서는 忠節義사가 가득한 곳이다.

이는 정인희 청양군수의 창의정신이 녹아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5. 청양의병, 전국을 대표하는 의병으로 역사적 재평가되어야 한다.

정인희 청양군수는 당시 어느 군수보다 그 직분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1895년 10월 청양의병을 창의학였고, 11월 29일에는 의병 180명을 이끌고 홍주성에 도착하여 12월 2일 의병에 동참할 수 없었던 홍주목사 이승우를 설득하여 의병에 참여시킨바 있다.

1895년 12월 3일에는 홍주에 의병창의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공주에도 창의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진격 중 정산전투에서 패한 후 군수 직을 파직 당했다.

군수가 당시 의병창의소를 설치하여 의병활동과 지원을 한 것은 항명으로서 어느 군수도 이를 주도하지 못했으며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특히 충북을 대표하는 제천의병의 경우 단발령을 강요하던 김익진 군수는 의진에 의해 도망가 버렸다는 기록이 있으나 청양의병의 경우 군수가 직접 나선 본거지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을미 홍주의병과 병오 홍주의병에 가려진 청양의병은 전국을 대표하는 의병으로 역사적 재평가 시급한 실정이다.

사설

화재 주범 '부주의' 없애야

올해 상반기 화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한 2만5천18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 가량은 부주의가 원인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발표한 2017년 상반기 화재통계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61명, 부상자는 9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사망자는 5.3% 감소하고, 부상자는 3.9% 증가한 수치다. 또 재산 피해는 31.2% 증가한 2천724억원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건수가 2.5% 늘어난 이유는 불철 건조한 날씨로 야외 화재(689건), 들불(431건)이 작년보다 더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안전처는 분석했다.

또 부상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14명이 다친 동안 메타폴리스 화재를 비롯해 여수 승합차 화재(8명), 전북 발라 화재(6명) 등 여럿이 다친 화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올해 상반기 화재를 원인으로 살펴봤더니

59.3%에 해당하는 1만4천945건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해 전기적 요인 4천244건(16.9%), 원인 미상 2천326건(9.2%), 기계적 요인 2천281건(9.1%) 등 순이었다.

이중 부주의는 다시 담배꽂초 30.9%, 쓰레기 소각 18.3%, 불꽃·불꽃화원 방치 13.8%, 음식물 조리 11.4% 등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는 야외 40.7%, 주거시설 15.8%, 임야 12.1%에서 각각 일어났다. 장소별로 보면, 주거시설이 5천862건으로 2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야외·도로 5천754건(22.8%), 산업시설 3천142건(12.5%), 임야 2천739건(10.9%), 자동차 2천491건(9.9%), 생활서비스 2천133건(8.5%) 등이 뒤따랐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일회용품 소비 줄여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달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일회용품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포럼을 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유도하고 회수·재활용 정책이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현행 일회용품 사용은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라 규제된다. 이 법에 따르면 목욕탕에서는 일회용 면도기나 칫솔·치약 등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을 공짜로 나눠주지 못하게 돼 있다.

커피 산업 성장과 소비 성향의 변화 등으로 국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일회용품 사용량은 2009년 191억 개에서 2012년 260억 개로 늘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가 꼽힌다.

2008년 시행된 EPR은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업체에 청구한다.

우수한 일회용 컵 회수 사례로는 서울 서초구의 시범사업이 꼽힌다.

서초구는 지난해 5월 강남대로에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 협약을 통해 업체가 수거함 제작 비용을 내고, 수거함 외부 청소 관리인 고용이나 수거 비용은 서초구에서 부담했다.

그해 6~8월 전용 수거함을 운영한 결과, 일회용 컵이 전체 부피의 90.7%를 차지해 수거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의 이번 포럼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회용품 정책을 만들기 위해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기대한다.

휴가철 '착한운전 마일리지' 손쉽게 신청하고 떠나세요

기고



홍용기
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순경

휴가철, 여행지로 떠나는 도로는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 없이는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없다. 서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는 자발적인 서약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여행을 떠나보는 것을 어떻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 도로교통

법시행규칙 별표28에 근거, 뺑소니 사범 신고 등 검거 유공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운전면허 특별점수'를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모범적인 운전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됐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에 1일씩 감경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치안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 이름 등을 서약서에 작성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는 가정에서 인터넷 '교통법규준수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www.fine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간단하게 신청 및 열람을 할 수 있다.

손쉬운 방법으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2가지 효과를 보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배려심 있는 안전한 운전을 약속하며 여행을 떠나자.

Table with 2 columns: Today's News (오늘의 소사) and content.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젊은생각·바른신론
2006년 5월 17일 창간

Table with 4 columns: Editor-in-Chief (김현정), Publisher (김성구), Deputy Editor (조정호), and other roles.

기고

미래의 지식재산 인재들과 함께한 여름



박현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 과장

Ministry of Home Affairs, ZIMBABWE(잠바브웨 내무부)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지재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반면, 반대로 이를 잘 활용해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다. 기업 가치의 80%가 무형자산에서 발생하고, 이 중 40%는 지식재산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 S&P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21세기 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는 젊은 대학생과 이제 막 사회로 뛰어들려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더욱 중요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이러한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열린 'WIPO-Korea Summer School on IP'가 바로 그것으로, 올해는 12개국 26명의 미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지재권 서머스쿨(Summer School) 프로그램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1998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지식재산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미국, 스위스 등 10개국에서 개최된다. 국제 지식재산연수원은 2006년 WIPO 공식 파트너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WIPO와 협력

해 2008년부터 'WIPO-Korea Summer School on IP'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42개국 237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본 과정에서는 ▲특허와 발명 ▲특허 관련 분쟁과 최근 이슈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디자인권 등의 기타 지재권 ▲지식재산의 사업화 ▲세계 지식재산 분야의 당면 과제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특허심판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관련 기관 견학도 진행됐다.

'WIPO-Korea Summer School on IP'의 특징은 외국인 참가자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올해는 약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11명의 우리나라 대학생 참가자들이 선발돼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다소 생소했던 지재권 분야에 대해 학습하고 변이사·특허심사관·CEO와의 교류를 통해 대학생들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과 2주 동안 합숙하면서 형성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의 이들이 향후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국제 사회로 진출할 때 큰 자산이 될 줄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참가자들은 자국 지재권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큰 열망을 가지고 교육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개도국 출신의 참가자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선진 지재권 제도와 시스템을 접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IP5(특허분야 선진 5개국), TM5(상표분야 선진 5개국), ID5(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의 일원으로서 개도국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WIPO-Korea Summer School on IP'는 우리나라의 지재권 제도와 시스템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교육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친밀감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친한(親韓)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주로 젊은 연령층의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WIPO-Korea Summer School on IP' 참가자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이 생애 처음으로 접해지는 지재권 체계가 된다. 콘라트 로렌츠(Konrad Lorenz)가 말한 '각인(Imprinting)'처럼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장마가 끝나고 시작된 올해의 'WIPO-Korea Summer School on IP'는 그 이름에 어울리게 유난히 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참가자들에게는 값진 경험, 지식,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로 기억될 것이다.

한편, Summer School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WIPO Academy 홈페이지(http://www.wipo.int/academy)에서 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E-mail: d-mail@ham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 학교폭력예방 선서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망설이지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 하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주 관 |

DT 大田투데이

DTN